

碩士學位論文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개념과  
존 웨슬리의 믿음개념 비교研究  
- 루터, 칼빈, 웨슬리를 중심으로 -

牧園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組織神學專攻

金 炫 式

2003年 11月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개념과  
존 웨슬리의 믿음개념 비교研究  
- 루터, 칼빈, 웨슬리를 중심으로 -

指導教授 이 선 희

이 論文을 神學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3年 11月

牧園大學校 大學院

神學科

金 炫 式

金炫식의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主審委員

이 선 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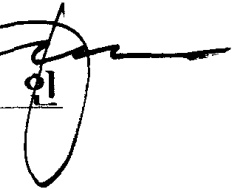
副審委員

임 동 원



副審委員

박 노 권



2003年 11月

牧園大學校 大學院

## 감사의 글

훌륭한 스승 밑에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합니다.

목회를 준비하는 신학도에게 있어 훌륭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인간 영혼의 생사여부를 판가름하는 일이기애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오늘 이 논문이 있기까지 저는 세 분의 스승님을 만났고 그 스승님께 감사의 글을 남기고자 합니다.

먼저 복음이라는 신앙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신 태백 성산교회 남궁 동 목사님, 그리고 신앙에 있어 절대 사람 앞에 굴하지 않아야 됨을 알게 하신 카다쉬 코러스 교영일 교수님, 마지막으로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복음이 되어짐을 알게 해주신 저의 지도교수 이선희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논문을 마치면서 복음은 오직 성경말씀을 통하여 형성되어지고 또 그 말씀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으며 이 말씀이 살아 운동력있어 영혼을 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마치 밭의 보화를 발견하여 얻게 된 것과 같은 심정이었습니다.

아울러 끝까지 이 글에 대해 야김없는 지적과 지도를 해주신 임동원 교수님과 박노권 교수님께도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목원을 통하여 훌륭한 목회자가 배출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2003년 12월 弟子 김현식

# 목 차

1.1. 문제제기	1
1.2. 연구방법 및 범위	2
2.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존 웨슬리의 믿음 분석	4
2.1.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에 나타난 믿음개념 분석	4
2.1.1. 루터의 인간 이해	4
2.1.1.1. 영적본질과 내적인간	5
2.1.1.2. 믿음과 행위	6
2.1.1.3. 원죄의 인간	7
2.1.2. 하나님의 말씀	9
2.1.2.1. 율법의 기능	9
2.1.2.2. 약속의 기능	10
2.1.3. 믿음의 개념	11
2.1.3.1. 도덕적 개념의 믿음	12
2.1.3.2. 약속으로서의 믿음	13
2.1.4. 중생: 결혼의 비유	13
2.1.4.1. 신랑과 신부의 결합	14
2.1.4.2.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14
2.1.5. 성화	16
2.1.5.1. 외적 인간	16
2.1.5.2.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17
2.1.5.3. 행위에 대한 오해	19
2.2. 칼빈의 「기독교 강요」(제3권)에 나타난 믿음개념 분석	21
2.2.1. 칼빈의 인간 이해	21
2.2.1.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23
2.2.1.2. 인간의 안내자로서의 성경	24

2.2.2. 칼빈의 말씀 개념	25
2.2.2.1. 말씀과 성령	26
2.2.2.2. 말씀과 믿음	27
2.2.2.3. 일하는 말씀	28
2.2.3. 칼빈의 믿음 개념	29
2.2.3.1.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	30
2.2.3.2. 믿음과 말씀	30
2.2.4. 칼빈의 중생개념	31
2.2.4.1. 복음에 근거한 회개	32
2.2.4.2.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	33
2.2.5. 칼빈의 성화 개념	34
2.2.5.1. 성경에 의한 삶	34
2.2.5.2. 자기 부정	35
2.3.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에 나타난 믿음개념 분석	36
2.3.1. 웨슬리의 인간 이해	36
2.3.1.1. 인간의 구성요소	36
2.3.1.2. 인간의 원죄	37
2.3.2. 웨슬리의 말씀 이해	38
2.3.2.1.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	38
2.3.2.2. 의(義)의 전가	41
2.3.2.3.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43
2.3.3. 웨슬리의 믿음 개념	43
2.3.3.1. 믿음과 행위의 관계	44
2.3.3.2. 행위계약과 은혜계약	46
2.3.3.3. 믿음에 의한 구원	47
2.3.4. 웨슬리의 중생 개념	48
2.3.4.1. 중생의 증거들	49
2.3.4.2. 중생한 자의 특권	50
2.3.5. 웨슬리의 성화 개념	51
2.3.5.1. 믿는 자들의 회개	52
2.3.5.2. 그리스도인의 완전	53

3. 루터, 칼빈, 웨슬리의 믿음 개념 비교 .....	55
3.1. 인간의 이해: 몸과 영혼 .....	55
3.2. 성경의 이해: 일하는 말씀 .....	56
3.3. 믿음의 개념: 하나님의 행동 .....	57
3.4. 말씀과 믿음의 관계: 말씀에 근거한 믿음 .....	58
3.5. 성화에 있어서의 믿음: 믿음에 의한 성화 .....	60
4. 종교개혁적 믿음에 대한 오해 .....	63
4.1. 인간 이해에 있어서의 오류 .....	63
4.2. 성경의 그릇된 이해 .....	64
4.3. 믿음 개념의 오해 .....	66
4.4. 성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 .....	67
5. 맺는 말 .....	72
<참고문헌> .....	73

## 1.1. 문제제기

개신교신학, 특히 로마 카톨릭에서부터 벗어난 시점인 1500년대 마틴 루터(Martin Luther)와 존 칼빈(John Calvin)신학, 그리고 1700년대 감리교 신학의 뿌리인 존 웨슬리(John Wesley)의 신학에 있어 오늘날 개신교의 구원론 핵심이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파악함으로써 믿음의 본질이 무엇이며 또한 이들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성경적 믿음의 근거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구원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임을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의 개신교, 그 중에서도 특히 감리교 내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이해부족은 이미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더불어 신앙생활의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었다. 또한, 믿음에 대한 오해는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학술견해를 펼쳐게 됨을 보게 되었고, 이로 인한 이러한 그릇된 학술견해로 파생되어지는 영향은 감리교내의 신학생들은 물론 일반 감리교 성도들에게조차 이신칭의 교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어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성경적 내용을 위협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됨을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신칭의에 관한 논쟁은 최근 기독교 타임즈에 게시된 행위구원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에 있어 수차례 대두되었던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지난 2003년 3월 이후 감리교 신문인 <기독교 타임즈>에 게시된 이신칭의에 관한 논쟁은 웨슬리를 중심으로 펼쳐진 감신대 김홍기 교수의 '사회성화' 이론과 목원대 이선희 교수의 '칭의와 성화의 유일한 조건은 믿음'이라는 논고로 이미 화두에 올랐던 상황이다. 이 둘 사이의 논제는 웨슬리가 말한 이신칭의의 본질을 말하는데 있는 것인데, 목원대 이선희 교수의 논고에서 웨슬리 신학은 전형적인 복음주의 신학이라는 주장이다.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칭의와 동시에 중생하여, 이로부터 사랑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에 의하여 성화된다는 성화론을 핵심교리로 삼는 신앙양태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에 반해 감신대 김홍기 교수의 주장은 웨슬리 신학이 전형적인 (복음적) 신인협동설(神人協同說)이라는 주장이다.<sup>1)</sup>

결국, 이러한 논쟁은 이미 감리교 신학대 내에서도조차 이신칭의에 대한 그릇된 견해가 얼마나 널리 만연되어졌는가를 잘 보여주는 예인 것이다. 개신교의 출

1) 『기독교타임즈』, 「목회와 신학」, (2003), 3.15 : 8.



받은 분명 이신칭의로 말미암는 복음주의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또한 개신교의 뿌리는 루터, 칼빈, 웨슬리에게서 찾을 수 있으며 이들이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만이 오늘날 개신교의 믿음을 또한 정확히 정의할 수 있는 것이다. 필자는 되도록 이들 종교개혁가들의 본문을 중심으로 믿음의 개념을 살펴볼 것이며 이들이 주장하는 것을 토대로 하여 논고를 전개해 나갈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감리교 내의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가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가 말한 이신칭의(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본질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나왔는가를 살펴봄으로 소위 카톨릭이 말하는 '믿음과 행위를 통한 구원'의 양상으로 점차 접근해 가고 있음을 함께 밝히고자 한다.

오늘날 감리교의 이신칭의 교리에 있어 만일 그것이 웨슬리가 주장한 것과 다른 길로 걷는다면 오늘날 감리교는 그 이름의 의미를 상실하는 모습일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재해석함으로써 다른 구원을 주장하여 믿음 외에 다른 것에 기대를 거는 학설을 만들어 낸다면 이것은 실로 엄청난 구원에 대한 오해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즉, 성경이 아닌 다른 것에 기대를 거는 현상으로 발전된다면 인간의 영혼구원을 다루는 문제에 있어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개신교 구원의 핵심인 이신칭의에 있어 그 본질을 개신교의 출발점인 종교개혁가들과 존 웨슬리에게서 찾아봄으로 오늘날 개신교 내에 만연된 믿음의 오해현상과 변질된 상황을 함께 비교분석하여 오직 믿음에 의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함이 본 논문의 목적인 것이다.

## 1.2. 연구방법 및 범위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믿음의 개념 연구에 있어서는 루터, 칼빈을 중심으로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와 함께 이들의 글과 이들에 관한 문헌을 중심으로 연구해 나갈 것이다.

첫째, 루터의 글에 있어서는 그의 논고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를 중심으로 그가 주장하는 믿음의 개념을 밝히고 아울러 그의 관련된 학술논문들을 비교분석하여 그릇된 믿음 해석을 함께 밝히고자 한다.

둘째, 칼빈의 글에 있어서는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제3권)를 중심으로 구

원론의 핵심인 믿음을 밝힐 것이다. 「기독교 강요」 제3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신칭의가 나오며, 성화가 함께 나오기 때문이다. 즉, 믿음, 칭의, 중생, 성화의 내용이 다 들어 있는 부분인 것이다. 칼빈 역시 그의 관련된 학술논문을 비교 분석하여 믿음의 개념을 밝히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웨슬리의 글에 있어서는 「웨슬리 표준설교」 17편<sup>2)</sup>에 나타난 믿음의 개념을 살펴봄으로 오늘날 감리교의 구원핵심인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논거하여 감리교 내에 탄원된 믿음의 그릇된 이해를 밝히고자 한다.

비교분석에 있어서는 루터, 칼빈, 웨슬리가 말하는 각각의 믿음에 대한 공통적인 개념을 서로 비교하여 이들 종교개혁가들이 지적하는 믿음이 복음주의의 뿌리임을 함께 논증하고자 한다. 또한 이들이 주장하는 믿음 개념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성경인용을 함께 기술함으로 종교개혁가들은 믿음에 대한 근거를 오직 말씀에서 찾아내고 있음을 함께 밝히고자 한다. 믿음정의의 이러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함은 이들의 주장이 스콜라 철학자들이 주장하는 철학사상 즉, 이성의 결과물에서 근거한 것이 아님을 말함에 있는 것이다.

믿음 개념의 오해로 말미암는 부작용에 있어서는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믿음을 재해석하는 일부 신학자들의 그릇된 견해와 함께 이로 말미암는 여러 부작용을 함께 살펴봄으로 오늘날의 개신교가 얼마나 믿음의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는가를 제시할 것이다.

따라서 개신교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 사상이며, 그 뿌리가 되는 종교개혁가들의 믿음개념을 밝힘으로 이것이 진정 개신교의 본질이며 또한 이것이 감리교의 본질이며 또한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혼구원임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

2)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이선희역 (대전: 복음출판사, 2002)

## 2. 종교개혁자들의 믿음과 존 웨슬리의 믿음 분석

### 2.1. 루터의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에 나타난 믿음개념 분석

루터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는 1520년에 ‘그리스도인의 자유(The Freedom of a Christian)에 관하여’라는 독일말로 쓴 글을 라틴어로 철저히 보완하여 쓴 글이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교황이 루터가 주장하는 이신칭의(以信稱義) 사상을 이단시 취급하고 공격하기 시작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데 루터는 당시 3개의 소(小)논문들을 발표하여 교황에 답변하게 된다.

첫 글은 카톨릭의 계층질서적 성직체제에 대한 비판인 「독일 귀족에게 고함」(The Address to the German Nobility, 1520. 8)이라는 논문이며, 두 번째는 1520년 10월 6일 중세의 기독교회가 성례전으로 말미암아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상태에 있음을 묘사하는 성례전적 구조를 비판하는 「교회의 바벨론 포로」(The Babylonian Captivity of the Church)라는 제목의 글이었다.

마지막으로 1520년 말에 쓰여진 글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The Freedom of a Christian)인데 이것은 기독교인의 구원론적 자유와 이웃에 대한 사랑에 관한 것이다.<sup>3)</sup>

루터는 이 글에서 자신의 입장만을 답변하기 위해 쓴 것이라기 보다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요, 성경의 핵심이며 또한 복음의 핵심임을 밝히고자 한 것이다.

본 논고를 통해 루터가 주장하는 믿음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 또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신칭의 사상은 무엇인지를 살펴봄으로 구원의 핵심인 믿음을 정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 2.1.1. 루터의 인간 이해

루터의 믿음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인간의 본질부터 파악해야 할 것이다. 루터가 말하는 믿음에 있어 이것은 일반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저 도덕적이며 뭔가 인간 편에서 생산되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루터의 이러한 믿음 개념에 있어 그는 자신의 글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에서 사람들이 갖는 믿음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3)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기독교문사, 1997), 135-136.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대수롭지 않은 무엇으로 보아 왔다. 또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믿음을 일반적인 덕목의 하나로 여기고 있다. 그들이 믿음을 그렇게 여기는 이유는 실제로는 믿음을 가져보려고 한 적이 한번도 없기 때문이며,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체험해 본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sup>4)</sup>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믿음의 개념은 그저 인간 편에서의 생산되어지는 도덕적인 것 가운데 하나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하며 또한 이성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개념에 있어 루터는 인간의 본질을 2가지로 구분함으로 그 오해를 풀어가고 있다.

인간의 2가지 본질 즉, 영적 본질과 육적 본질로 구분 짓고 있는 데, 영혼이라고 부르는 이 영적 본질에 따라서는 영적 인간, 내적 인간, 새로운 인간으로 불리며, 육이라고 불리는 육적 본질에 따라서는 육적 인간, 외적 인간, 옛 인간으로 불리고 있다.<sup>5)</sup> 루터의 이러한 인간 구분은 그 근거를 성경에서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우리의 외적 인간은 후패할지라도, 내적 인간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고후4:16) 이것을 통해 한 인간 안에는 상반된 두 부분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두 부분 가운데 내적 인간인 영혼에 속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자 할 때 외적인 어떠한 것이라도 도움이 될 수 없음을 함께 나타내 주고 있다.<sup>6)</sup> 이러한 루터의 인간 이해는 종교개혁가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공통된 현상으로 인간을 이성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으로 구분하여 보고 있다는 것이다.

#### 2.1.1.1. 영적본질과 내적인간

루터의 이러한 외적인간과 내적인간의 관계에 있어 외적인간의 어떤 형태이든지 내적인간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루터는 이러한 근거에 있어 의식주의 예를 들고 있는데, 육신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살면서, 기분이 좋고, 자유롭고, 편안하다고 할 때, 그것이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sup>7)</sup> 즉, 하나님에 대한 믿음 없는 사람도 얼마든지 그러한 외적인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반대로 병들고 굶주림에 있어 이것 역시 영혼에 대해서는 아

4)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이선희 역, (미간행 번역원고), 1.

5) *ibid.*, 4-5.

6) *ibid.*, 4.

7) *ibid.*, 5.

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된다. 여기서 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외적인 여러 형태의 행위와 함께 인간의 내적인 행위인 명상, 사변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인간이 스스로 행하는 일련의 외적인 행위들과 스스로 행하는 기도와 금식 등의 내적인 모든 행위들은 그것이 전적으로 인간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이기에 이것들이 내적 인간인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루터의 예시는 더 나아가 카톨릭의 예배에 있어 예배의 행위 역시 영혼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함을 말하고 있다. 카톨릭이 말하는 구원에 있어 예배의 여러 행위로 인한 구원의 형태를 비판하고 있는 모습이다. 예배의 여러 행위들, 즉 성자들의 본을 따라 거룩한 옷을 입는다든지(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곧 그 차는 경문을 넓게 하며 옷술을 크게하고-마23:5) 거룩한 곳에 있든지(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요4:21)기도와(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마7:21)금식이나(예수께서 나아와 가로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니이까-마9:14) 육신으로 행하는 모든 의식이 그리하다는 것인데 이러한 것을 행하든, 행하지 않든 이것으로서는 영혼에 어떠한 해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sup>8)</sup>(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딤후3:5,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요5:41)

따라서 인간의 영혼에게 유일하게 필요한 것은 인간에게서 생산되어지는 여하의 것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뿐이라는 사실이다.(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요11:25)

### 2.1.1.2. 믿음과 행위

영혼이 의롭다함을 얻을 때 행위로도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하나님이 명하신 방법과는 상반되는 것이며 이것이 곧 신성모독인 것이다.(내 마음이 가만히 유혹되어 손에 입맞추었던가 이 역시 재판장에게 벌 받을 죄악이 내가 그리하였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니라-욥31:27~28) 인간은 아담의 타락 이후 원죄의 속성상 거기서 나오는 모든 행위 자체가 의롭지 못하므로 영혼을 의롭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원죄 하의 인간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에 의한 자유이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원죄 상태의 인간에 필

<sup>8)</sup> *ibid.*, 6.

요한 것이 믿음뿐이라는 것을 루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네가 믿기 시작했다면, 네 안에 들어 있는 것은 모두 저주받아 마땅한 것들이요, 죄책이요, 죄라고 하는 사실을 또한 배운 것이다.”<sup>9)</sup>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이 원죄 상태에 있음을 알아 가는 것이다.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원죄 상태임을 알았을 때 비로소 영혼을 위해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원죄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간이 될 수 있음을 알게 되는 것이다.(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롬10:10) 따라서 이성애 기초한 인간의 행위와 어떤 공로도, 구원에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잘못 현혹시키는 것이다.<sup>10)</sup>

인간은 오직 믿음이 없기에 마음의 불신앙 상태에 있는 것이며 이로 인해 결국 죄책과 저주를 받아 마땅한 노예가 된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죄책과 노예의 현상 역시 인간의 외적 죄나 행위를 통해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이것은 죄의 유희에 넘어간 인간의 영혼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행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난 후 인간은 비로소 믿음만을 구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지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비로소 그 영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고난 당하시고 부활하신 것에 대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인간의 죄를 처리할 힘, 곧 인간 스스로 자신을 죄들로부터 깨끗케 할 힘이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복음 약속)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것이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에 의한 의(義)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의(義)인 것이다.<sup>11)</sup>

### 2.1.1.3. 원죄의 인간

인간의 영혼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은 결국 말씀 외에

---

9) *ibid.*, 9.

10) 정병식, “서편 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 신학의 변화와 발전” 『역사신학논총』 제2집 (2000), 11.

11) 마르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박문재역 (경가: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86.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그를 의롭게 못한다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에게 있는 죄의 속성상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아담의 타락이후 인간은 죄의 상태로 인하여 그 곳에서 나오는 모든 행위로서는 스스로를 전혀 의롭게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루터는 원죄를 또한 불신앙으로 본다. 원죄가 원래 이기적인 자기 추구일 때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위배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으로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또 이웃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돌리지 않는 면으로서 나타난다.<sup>12)</sup>

이러한 행위는 실제적 죄를 짓게 한다. 왜냐하면 원죄 하의 인간은 하나님의 것들을 구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자신과 성도들 안에서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기 때문이다.<sup>13)</sup> 이러한 원죄의 상태에서 인간은 인간의 본성, 영적 본질은 타락으로 인해 더럽혀져 있고 왜곡되어 있어 자연과 역사를 통해서도 인간은 하나님에 관한 참다운 지식에 접근할 수 없는 것이다.<sup>14)</sup>

루터의 칭의론에서 인간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의롭게 된다 (justification by grace through faith)라는 주장 역시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전적인 죄인이다 라는 인간 이해와 인간의 어떠한 선행도 구원에 상응할 만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라는 점을 동시에 말해 주는 것이다. 인간 본성은 전적으로 원죄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은 어떤 식으로든지 그 자신의 공로(merit)나 선행(Good work)에 의해서 자신의 구원에 공헌을 할 수 없기에 따라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순전한 선물이라는 사실이다.<sup>15)</sup>

루터는 이러한 원죄의 개념을 들어 믿음과 행위를 구분시킴으로 결코 원죄 하의 인간이 그 행위로서는 의롭게 되지 못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성경을 인용하고 있다.<sup>16)</sup>(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3:23) 이로서 원죄 하의 인간이 그 영혼을 의롭게 함에 있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믿음 외에 그 어느 것으로도 불가능함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믿음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

12) 이영현, “루터의 원죄사상” 「교회와 신학」 제11호 (1979), 124.

13) 이양호, “루터의 인간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2000), 120-121.

14) 김주한,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0집, 2001), 20.

15)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인간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집, 2000). 162-163.

16)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9.

## 2.1.2. 하나님의 말씀

원죄 하의 인간이 영혼 구원을 받고자 할 때 그의 행위에서 나오는 여하의 것들은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즉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만 가능성을 나타내 주고 있다. 이것이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즉 이신칭의의 내용이다. 루터는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교회의 전통에서도 아니고 행위에 의해서도 아니라 ‘성서만(Sola Scriptura)을 통하여 얻게 됨을 알게 된 것이다.<sup>17)</sup>

따라서 루터는 영혼 구원에 있어 성경을 바탕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는 성경 전체를 두 부분, 즉 계명들과 약속들로 나누어 인간의 원죄와 믿음을 전개시킴으로 영혼에게 갖는 말씀의 기능을 설명하고 있다.

“성경 전체는 두 부분, 즉 계명들과 약속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으로 하여금 선을 행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계명들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하고,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절망하게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게 하려는 것이다.”<sup>18)</sup>

따라서 율법을 떠나서는 복음을 이해할 수 없고, 마찬가지로 복음을 떠나서는 율법은 우리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오직 율법은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인간을 준비시킬 뿐이다.<sup>19)</sup>

### 2.1.2.1. 율법의 기능

성경의 이러한 계명, 즉 율법과 약속의 구분에 있어 율법은 인간이 그 행위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다. 계명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계명을 지킬 능력이 전혀 없음을 알게 되고 동시에 원죄 상태를 알게 되는 것이다.

즉, 계명은 인간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하며 곧 인간은 원죄 상태에 있었음을 알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계명을 통하여 인간은 죄인임을 알게 된 것이다.(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롬7:7) 이러한 상태의 영혼은 자신의 무능력을 깨달아 알게 되고 자신이 계명을 전혀 지킬 수 없는 상태임을 아는 것

17) 엄현섭, “루터의 성서 해석 방법과 그 영향” 「신학과 신앙」 제4집 (1990), 55-56.

18)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11.

19) 김철환, “말틴 루터의 설교신학에 나타난 ‘율법/복음 설교’에 대한 연구” 「루터연구」 제12집 (1997), 74.



과 함께 계명을 지키려 하되 하나라도 어기면 모두 다 어기는 것을 알기에 두려움과 불안함으로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8)

따라서 원죄의 상태를 알게 된 이 영혼은 그러한 자신의 행위로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코자 하는 약속의 말씀인 것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 2.1.2.2. 약속의 기능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다. 믿음으로 이 약속에 매달리는 영혼은 비로소 약속의 말씀에 동화되어 약속의 모든 좋은 내용들을 갖게 된다.<sup>20)</sup> 이러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약속들이 그를 돕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곧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이것이 새 언약, 곧 약속의 말씀이다. 따라서 율법을 지키기 위해 그는 자신의 행위나 여하의 노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만을 보며 그리스도만을 믿는 것이다. 또한 성직자나 교회의 중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sup>21)</sup>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인 은혜, 화평,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이 수많은 율법을 행하는 모든 행위로서 이를 수 없는 것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간단하고도 신속하게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자가 따라야 할 윤리적인 대상이 아니다. 그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믿음의 대상으로 부각시켰다는 점에서 종교개혁의 한 면을 보게 된다.<sup>22)</sup>

하나님의 약속들은 거룩하고 의롭고 자유롭고 화평스러운 말씀들이며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이 약속에 매달리는 영혼은 약속과 완전히 동화되어 곧 말씀의 내용들이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영혼은 오직 믿음만을 통하여 행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20)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11.

21) 박일영, “루터교의 교회 이해” 「신학과 신앙」 제9집 (1998), 217.

22) 정병식, “시편 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 신학의 변화와 발전”, 9.

근원으로부터 의롭게 되며, 거룩하게 되며, 진리답게 되고, 화평하게 되며, 자유롭게 되며,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이다. 그 영혼은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sup>23)</sup>(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요1:12)

따라서 오직 믿음과 말씀만이 영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며 영혼은 말씀에 동화되어 말씀의 내용과 같아 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필요한 것이며 또한 더 이상 행위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인한 믿음의 성취, 복음의 현상이 생긴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복음은 모든 율법의 요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그 근본으로 하기 때문이다.<sup>24)</sup> 믿음으로 그는 율법을 완성케 하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요구를 지키게 된 것이다.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게 된 것이므로 그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이며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다.

### 2.1.3. 믿음의 개념

루터는 ‘로마서 서문’에서 믿음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내리고 있다.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다. 그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며,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난다.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다. 그리고 믿음은 성령이 동반된다.”<sup>25)</sup>

즉, 믿음은 인간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또한 믿음은 옛 아담의 상태인 원죄를 없애는 기능이 있으며 이것 역시 하나님의 행동으로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믿음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여하의 외부 행위나 내면적 행위로서 발생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루터의 이러한 믿음의 정의는 당시 일반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

23)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12

24) 김철환, “말틴 루터의 설교신학에 나타난 ‘율법/복음 설교’에 대한 연구”, 73.

25) 마르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20.

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즉, 당시 사람들은 믿음이 그저 인간들의 덕목이나 선행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있었다는 것이다.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에 대해 루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믿음(faith)은 꿈꾸는 그 무엇, 인간적인 환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그 용어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들이 믿음에 도덕적인 진보나 선행들이 수반되지 않음을 보면서 여전히 믿음에 관하여 많은 말을 하게 될 때, 그들은 믿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우리가 올바르게 되고 구원을 얻으려면 ‘행위들’을 하여야 한다고 선언하는 오류에 빠진다.”<sup>26)</sup>

루터가 말하는 믿음의 개념은 인간들에게서 생산되어지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으로 생산되어지는 것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의 이와 같은 믿음의 오해는 결국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아닌 인간의 도덕적인 것의 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 2.1.3.1. 도덕적 개념의 믿음

도덕적 개념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을 그저 일반적인 덕목의 하나 정도로 여기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인 덕목, 즉 인간이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고, 또한 스스로 행할 수 있는 것으로 믿음을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러한 사람들은 실제로 믿음을 한 번도 가져보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이며, 믿음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스스로 체험해 본 바가 한번도 없기 때문이다.<sup>27)</sup> 이것은 당시 로마 카톨릭 교회의 잘못된 믿음의 이해를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카톨릭의 구원론에 있어 그들은 교회의 가르침과 함께 선행을 하는 것으로 구원이 된다고 가르쳐 왔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믿음 개념이 아닌 교회의 가르침, 즉,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교회의 여러 가지 가르침과 인간이 행하는 정도의 것으로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것으로 흔히 인간의 이성적인 결과물에 의해 구원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이성적인 결과물로서 믿음을 이해하는 대표적인 신학이 바로 스킨콜라 신학이며 루터는 이러한 이성적인 믿음에 민감히 반응하였던 것이다. 죄인

<sup>26)</sup> *ibid.*, 20.

<sup>27)</sup>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1.

의 구원을 공로와 행위에 근거시키는 스콜라적 가르침에 대해 루터는 오로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만을 구원의 근거로 인정한 것이다.<sup>28)</sup>

인간의 이성으로 파악하는 스콜라주의에 대한 루터 비판의 핵심은 이것이다. 스콜라 신학의 신(神) 인식방법, 즉 인간 이성의 사변적인 추론을 통해 자연이나 역사로부터 시작하여 하나님에게로 거슬러 올라가려는 모든 시도들은 쓸데없거나 심지어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sup>29)</sup>

#### 2.1.3.2. 약속으로서의 믿음

믿음은 하나님에게서 생산되는 것이다. 사람이 생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행동이다. 따라서 하나님에게서 생산되는 믿음을 설명도 할 수 있고, 듣고도 이해도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행동을 알아야 한다. 즉, 믿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관여함이 없이 인간의 탐구함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믿음은 내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활동에 내가 순종하게 됨으로 믿음의 상태를 이루는 것이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살아 있고 흔들림 없는 신뢰이자 신앙인데 그것이 너무도 확고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으로 인하여 천 번이라고 죽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령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현상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믿음으로 내 영혼에 형성되었기에 믿음의 사람은 무엇에 내몰려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쁘게 모든 사람들에게 선행을 하고 또 모든 사람을 섬기며 자기에게 그러한 은혜를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을 위하여 온갖 종류의 곤경을 겪고자 하는 것이다.<sup>30)</sup>

#### 2.1.4. 중생: 결혼의 비유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것은 영혼이 그리스도와 의 결합으로 인해 그리스도의 것이 내 것이 되며 또 내 것이 그리스도의 것으로 되는 것을 말한다. 루터는 이러한 현상을 결혼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데,<sup>31)</sup> 믿음이라는 결혼 반지를 통하여 영혼이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서로의 공동 소유됨을 표

28) 정병식, “시편 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 신학의 변화와 발전”, 15.

29) 김주한,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 연구”, 20.

30) 마르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21.

31)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15.

사하고 있는 것이다. 믿는 영혼은 그리스도가 가지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게되며, 그리스도는 영혼이 가진 모든 것을 그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는 것이다.

#### 2.1.4.1. 신랑과 신부의 결합

믿음은 영혼과 예수 그리스도를 결합시키는 중개자 역할을 하게 되어 그리스도는 영혼에게 있는 죄와 죽음과 저주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며,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은혜와 생명과 구원을 영혼에게 귀속시킴으로 영혼에게서는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게 된다.<sup>32)</sup> 따라서 믿음으로 진정한 결혼이 되는 것이며 서로의 좋은 것과 나쁜 것이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나-엡5:31)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지요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한번도 죄지은 적이 없고, 그래서 죽지 않으시고 저주받지 않으시는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지요 동시에 인간이시기 때문에 이 인격은 전혀 죄지을 수 없으며, 죽을 수 없으며, 저주받을 수 없는 것이다.<sup>33)</sup> 이렇기 때문에 신부인 영혼의 죄와 죽음과 저주를 대신 질 수 있는 것이며 이것으로 신부는 정결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믿는 영혼은 그의 신랑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보증을 통하여 모든 죄들로부터 자유롭게 되며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으며 지옥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신부는 하나님의 말씀인 그리스도로 인하여 정결케 되는 것이다.(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엡5:26)

이것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며 생명과 의와 구원에 대한 믿음이다. 따라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는 이러한 말씀과 생명과 의와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신부인 영혼을 정결케 하여 그리스도 앞에 걸어 나오게 하시는 것이다.(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네게 장가들며-호2:19-20)<sup>34)</sup>

#### 2.1.4.2.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루터는 영혼이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결합되므로 결혼의 비유를 들어 서로의 공동 소유됨을 말하고 있다. 이러한 공동 소유가 되는 과정에서 루터는 또한 영혼이 그리스도로부터 분여 받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왕 직분과 제사장 직분이

<sup>32)</sup> ibid., 15.

<sup>33)</sup> ibid., 15.

<sup>34)</sup> ibid., 16.

라는 것이다.

이러한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이 그리스도에게 있음은 그리스도가 만물의 주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의 독생자 즉 모든 믿는 자의 장자이기에, 인간은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왕의 직분과 동시에 제사장 직분이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구약에서도 묘사되고 있는 바, 첫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거룩히 여기며 첫 태생은 제사장과 왕직에 오를 권한을 부여 받게 되며(너는 내 장자요 나의 능력이요 나의 기력의 시작이라-창49:3) 또한 맏형은 제사장의 동시에 주인이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장자권에 따른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 역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에게 부여되는 것이다.(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벧전2:9)

그러나, 영혼에게 부여되는 왕의 직분과 제사장의 직분은 이 땅의 것과는 다른 개념이다. 그리스도인이 외적인, 물질적인 권세라는 관점에서 만물을 소유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만물 위에 얹혀졌다는 뜻이 아니다.<sup>35)</sup>

이것은 영적인 왕과 제사장의 직분이다. 영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 속에서 더욱 그 힘을 발휘하게 되기에 루터는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장자이시며 머리되신 그리스도 자신에게서와 그의 거룩한 형제들 모두에게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될수록, 점점 더 많이 악한 일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죽음까지도 당한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왕권이라는 것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이 왕권은 적들의 한가운데서 통치권을 발휘하며, 온갖 궁핍 가운데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sup>36)</sup>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왕권은 부여받은 사람은 그의 구원을 위해 모든 만물이 그를 위하여 봉사하게 되는 것이다. 그는 모든 만물로부터 유익을 얻어낸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이 그리스도의 영적인 왕의 직분을 누리는 것이다. 또한 이 영혼은 믿음으로 왕권을 누리게 됐으므로 다른 아무 것도 필요치 않게 된다. 믿음으로 되어진 왕권 하나만으로 그는 구원을 이루기에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유요 권세이다. 또한 그리스도의 제사장적 직분에 있어서도 이것은 영적인 제사장임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갖는 제사장의 직분은 2가지 기능으로 나뉘어 지는데, 첫째가 우리

---

<sup>35)</sup> *ibid.*, 19.

<sup>36)</sup> *ibid.*, 19.

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것이며, 둘째가 그 영의 생명 있는 가르침으로써 우리의 영혼 안에서 내적으로 가르치시는 것이다.<sup>37)</sup>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맡겨지는 직분이며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이러한 기능을 실제 다른 사람들에게 사용하게 됨으로 그는 그리스도가 그러하였듯 같은 반응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믿는 영혼은 이러한 제사장적 직분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 기도 할 수 있게 되며, 또 서로에게 하나님의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러한 직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맡길 수 없는 직분이다.

### 2.1.5. 성화

성화의 삶에 있어 루터는 외적 인간에 대해 먼저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영혼의 행위를 말하려는 것이다.

앞서 나타난바 영혼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외에 인간의 어떠한 행위(외적인 행위, 내면적 행위)도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함을 말하였다. 따라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과 또 그렇지 못한 영혼에 있어 행위가 갖는 역할을 루터는 말하고 있는 것이다. 루터가 반대하는 것은 선행을 공로로 보는 것이다.<sup>38)</sup> 이 행위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믿음이 오해되는 것이며 또한 구원의 전체적인 그림이 오해되고 있는 것이다.

#### 2.1.5.1. 외적 인간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며 자유롭게 됐다는 것은 이제 그가 더 이상 구원을 위한 어떤 외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자유로워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육체는 이 세상의 가멸적인 삶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러한 삶 안에서 그는 자신의 육신을 제어해야 하며 육신을 영에 굴복시켜야 하므로 행위를 하게 되는 것이다. 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에 일치되었기에 육신이 이를 방해하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해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sup>39)</sup>

---

37) *ibid.*, 20.

38) 지형은, “루터와 스페너” 「복음과 학문」 제4집 (1998), 94.

39)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4.

믿음으로 영혼이 의롭게 되었기에 육이 영에 대항하지 못하도록 육을 제어하는 것이 믿는 영혼의 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믿는 영혼은 행위에 더욱 힘쓰게 되는 것이다.

믿는 영혼은 이러한 육신의 의지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노력을 자발적으로 하게 된다.<sup>40)</sup>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혼은 기뻐하므로 만족하기에 대가를 바라지 않고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것만을 유일한 과제로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영혼의 반응은 육신 안에서 저항하는 의지와 만나게 되며 영혼은 이 의지를 억압하고 제한하는 것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행하게 되는 것이다.(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롬7:22~23)

하지만, 이런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는 오직 믿음뿐이기 때문이다. 영혼은 이미 믿음을 통하여 정결하게 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육신이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웃 사랑과 관련되어야 한다.<sup>41)</sup> 영혼이 하나님에 대해 그러하듯 육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것에 움직여지길 원하는 것이다. 그러나 육신의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 섬길 의무가 있는 자로서 이에 기꺼이 순종하는 자로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사랑의 행동인 것이다. 이러한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의롭게 되거나 의로운 상태로 있기 위해서 행위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게으르게 빈둥거리지 않기 위하여 그리고 그 자신의 몸에 일하며 그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위를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믿음과 사랑 그 자체이지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다.<sup>42)</sup>

#### 2.1.5.2. 좋은 나무와 좋은 열매

성화의 삶에 있어 믿음으로 구원된 영혼이기에 선행이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선행이 있으므로 그가 믿음으로 인한 구원이 되었다고 말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원인과 행위의 결과를 루터는 나무와 열매로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

40) *ibid.*, 24.

41) 이양호, “루터의 인간론”, 124.

42)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26.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없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낼 수 없다.(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마7:18) 분명한 것은 열매가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이 아니며, 나무가 열매 위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sup>43)</sup>

행위의 좋고 나쁜 것에 따라 그 영혼의 옳고 그름을 결정지을 수 없다는 것이다. 행위가 인간을 하나님 앞에 선하게 하거나 또는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믿음 상태에 따라 하나님 앞에서 행위가 선하거나 악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은 좋은 나무가 되는 것이며, 사랑하며 사는 착한 삶은 그 좋은 나무에서 맺히는 열매와 같은 것이다. 이 순서가 바뀌어서는 안된다.<sup>44)</sup>

영혼이 믿음만으로 회복되었다면 그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거나 여하의 행위를 하는 것에서부터 진정 자유로워진 것이다. 또한 그의 행위는 구원을 위한 것과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할 것이다. 또한 행위로 인하여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으며 오히려 행위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에 한없이 사용할 것이다. 그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들은 온전히 구원받은 상태의 자신을 위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것에서부터 진정 이웃사랑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루터는 이와 같은 이웃사랑의 현상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자신의 의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는 믿음을 통해 넘치도록 부요하기 때문에, 잉여분의 인생과 행위들을 갖고 이웃을 자발적인 기쁨으로 섬기는 것이다.”<sup>45)</sup>

믿음으로 구원된 영혼의 이러한 현상은 마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하셨듯 동일한 반응이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 말씀으로 동화된 영혼의 상태이며 여기서 나오는 이웃사랑이 진정 선행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이 영혼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혼이 구원된 상태이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그 반응을 나타내 보는 상태이다.

---

43) *ibid.*, 27.

44) 지형은, “루터와 스페너”, 91.

45)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32.

따라서 말씀으로 동화된 영혼에게서 나오는 행동 역시 2가지의 목적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즉, 어떤 행위든지 자신의 육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이거나 또는 이웃을 섬기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이 2가지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선한 행위도 아니고 그리스도인의 행위도 아닌 것이다.<sup>46)</sup>

### 2.1.5.3. 행위에 대한 오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킨다는 이유로 행위를 무의미하게 만들거나 또는 행위를 굳게 지켜야 한다는 이유로 믿음을 소홀히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루터는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의 현상을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모두 믿음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하여진 것임을 밝히고 있다.

첫째, 목자들의 잘못된 행위의 가르침으로 그들은 백성들을 칭찬하면서 면죄부으로써 바람을 불어넣으나, 믿음은 전혀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백성들로 하여금 열심을 내도록 선동하고 몰아가고 있다.

둘째, 의식들과 전통들과 인간의 율법들을 멸시하고 비판하는 것만으로 자신들을 자유로운 자요 그리스도인으로 내보이고자 하는 것이다.<sup>47)</sup>

즉, 이들은 믿음으로부터 출발되어지는 행위를 알지 못하는 것이며 또한 믿음도 없으면서 행위 또한 지키려 하지 않는 모습에 빠져 있는 것이다.

루터는 사람들의 위와 같은 믿음의 오해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 문제에 있어 행위의 역할을 지적하고 있다. 즉, 행위 자체로서 그것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의로움이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행위를 멸시하지도 말고 고집하지도 말라는 것이다.<sup>48)</sup>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 믿음을 통하여서 행위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행위로 뭔가 구원이 될 것 같다는 헛된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위를 통한 의(義)라는 것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행위들을 멸시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되는 것인데 행위들과 의식들에서 행하고 살고 하는 것은 이생에서의 삶을 유지하고 육신을 제어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기 때문이다.<sup>49)</sup>

46) *ibid.*, 39.

47) *ibid.*, 39~41.

48) *ibid.*, 42.

49) *ibid.*, 43.

육신에 대한 훈련과 제어를 위해서 의식(儀式)은 필요하지만 행위에 대한 망상에서는 벗어나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서 의식이 의미하는 것을 루터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의식(儀式)들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도 수공업자나 예술가의 작업에 있어서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가기 전에 세우는 작업 보조시설과도 같은 위치를 갖는 것이다. 이 작업보조시설은 그 자체를 완성물로 세우는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서 영구히 보존하려고 세우는 것이 아니다. 작업보조시설이 없으면 건축하거나 작품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건축이나 작품이 완성되면, 작업보조시설은 철거한다. 작업보조시설은 멸시의 대상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 작업보조시설이 바로 영구히 남아야 될 진정한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망상이요, 이 망상을 우리는 멸시하는 것이다.”<sup>50)</sup>

따라서 의식(儀式)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것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루터는 성화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있어 믿음과 행위의 관계를 윤리적인 행위로서 신앙인에게 불가피하게 따르게 됨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신앙인이 윤리적으로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서가 아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인 것이다. 성령은 인간 안에서 선행을 하게 하는 원동력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의 마음에 불어넣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성령의 활동 때문에 강제적이 아닌 자율적으로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루터에게 있어서 선행을 하지 않는 것은 바로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sup>51)</sup>

---

50) *ibid.*, 46.

51) 김문기, “칭의와 선행의 관계” 『호서신학』 제3집 (1996), 215.

## 2.2. 칼빈의 「기독교 강요」(제3권)에 나타난 믿음개념 분석

4권으로 구성된 칼빈의 기독교 강요중 제3권은 특별히 인간의 구원론에 관련된 것으로 구원론의 핵심인 믿음에 관하여 서술하고 있는 부분이다.

일반적인 구원의 순서(루터나 웨슬리)가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성화인데 반해 칼빈은 구원의 순서를 믿음에서 중생 그리고 성화, 칭의, 기도로 배열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 순서는 구원이 이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니다. 당시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가 이미 널리 퍼져 있는 상황에서 칼빈은 이 글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즉, ‘오직 믿음으로만 칭의 받고, 성화는 없어도 된다’라는 오해가 널리 퍼져있는 상황에서 성화를 먼저 강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칭의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신칭의를 얘기하는 것은 성화가 절대 없어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의도 때문에 칼빈의 구원순서 배열이 일반적인 구원론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믿음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어짐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4권으로 이뤄진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 제3권이 구원론의 전체 부분을 다룬 것이지만, 인간의 이해에 있어서는 제1권에서 그 내용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3권을 중심하여 믿음을 설명할 때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먼저 1권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 2.2.1. 칼빈의 인간 이해

칼빈은 인간의 구성을 영혼과 육체의 두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두 부분이라 말하는 영혼과 육체는 유기적인 조화가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와는 구별된 영혼의 활동이 있다는 것이다.<sup>52)</sup> 이러한 구분은 종교개혁가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점으로 인간의 구성을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인 영혼과 인간이 이성적으로 생산해내는 육체의 기관으로 구분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칼빈은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영혼’이며 이것은 불멸적이면서도 창조함을 받은 본질을 의미하며, 이것은 가끔 ‘영’(spirit)이라고 불린다.<sup>53)</sup>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에서 이 형상이 말하는 것은 단지 육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칼빈은 아담의 처음 상태를 묘사함

<sup>52)</sup> 존 칼뱅, 「기독교 강요(I)」, 김충호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130.

<sup>53)</sup> ibid., 317.

으로 처음에 아담의 상태는 그 영혼에 있어 바른 이해력을 충분히 소유하였고 감정을 이성애 종속시켰으며 일체의 감각을 적절한 질서에 따라 조절하였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처음에는 지성의 빛과 마음의 바름과 모든 부분의 건전함에서 뚜렷이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sup>54)</sup> 이것으로 칼빈이 말하는 인간의 이해는 먼저 육체가 아닌 영혼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 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부패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거의 지워졌기 때문에 파멸 후에 남은 것이라고는 오직 혼란하고 이지러지고 오염된 것뿐이었다. 이러한 인간의 타락은 그와 하나님과의 분리를 초래하였다.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과 신령한 연합관계에 있었으나, 인간 스스로 타락함으로써 하나님으로 분리된 것이다. 이것은 영적 사망 곧 영혼의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sup>55)</sup>

칼빈은 인간의 구조, 즉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 있어 육체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기관은 영혼인 것이다. 이것은 곧 인간이 선행을 할 때도 육체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닌, 본질인 영혼의 상태를 먼저 말하려 하는 것이다.

“영혼이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지 않는다 해도 그것은 육체 속에 거처하는 것처럼 간주하여 거기에 머물며, 육체의 모든 부분에 생기를 넣어주고, 육체의 모든 기관을 각각의 행동에 적절하고 유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인간 생활을 다스림에 있어서도 최고의 지위를 자치하며, 그리고 지상생활의 의무만이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자극한다는 사실이다.”<sup>56)</sup>

따라서 인간은 영혼의 상태에 따라서 선행을 하느냐 악행을 하느냐가 결정되어지는 것이며 육체는 또한 이 영혼에 의하여 움직여짐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 할 때도 역시 칼빈의 표현상 영혼의 상태에서 결정되는 것이다.

결국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께로 향한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이 영혼이 아담 이후 전적으로 부패되었기에 불가능한 것이다. 이러한 부패의 현상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54) *ibid.*, 322~323.

55) 김정훈, 「칼빈의 인간관」 (정규오목사 은퇴기념 논총, 광신대학교, 1999), 149.

56)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김충호역, 326.

“아담이 그의 원래의 상태에서 타락했을 때, 이 변절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이 전적으로 소멸되거나 파괴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남은 것은 다만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다.”<sup>57)</sup>

따라서 인간 스스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하는 것, 즉 스스로 믿음을 가져보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그 자신이 하나님보다는 이성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 2.2.1.1.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인간에 대한 지식

칼빈의 인간 이해에 있어 인간이 원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아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자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는 것이다. 칼빈의 인간 이해에 있어 인간이 원죄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인간과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만 알 수 있는 것으로 말한다. 즉, 자아에 대한 지식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자아에 대한 지식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 자신의 무지, 공허, 빈곤, 허약, 이보다 더한 타락과 부패를 자각함으로써, 지혜의 참된 광채, 건전한 덕, 차고 넘치는 선, 의의 순결함이 오직 주안에만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악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생각하게 된다.”<sup>58)</sup>

따라서, 인간이 원죄 상태에 있는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자아에 대한 지식과 이것을 알게 하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없이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지식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자아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사실이다. 칼빈은 성경 율기서의 내용을 통해서도 나타내는바 ‘율기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순결을 표현함으로써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어리석음과 무능력, 그리고 부패를 인식케 하는 가장 강력한 논증을 사용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sup>59)</sup>(율38:1이하)

---

57) *ibid.*, 322.

58) *ibid.*, 100.

### 2.2.1.2. 인간의 안내자로서의 성경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때에만 비로소 인간의 자아를 알게 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는 기능으로서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바로 성경이다. 칼빈은 이러한 성경의 기능을 ‘하나님께로 향하려는 모든 인간의 안내자’로 묘사하고 있다.<sup>60)</sup>

즉, 성경이 있어야만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정확히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며 또 성경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정확히 인식하고 하나님께로 정확히 향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려면 그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말씀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의존해야 한다.<sup>61)</sup>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창조주로 알았을 때 자신이 비로소 피조물인 것을 알게 되고,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구속주로 알았을 때에만 비로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창조주와 구속주로서 알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경의 기능을 칼빈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로서만이 아니라 구속주로서도 알아야 한다. 따라서 그들은 조금도 의심없이 말씀을 통하여 이 두 지식에 다같이 도달하는 것이다.”<sup>62)</sup>

성경을 통하여 인간은 비로소 하나님에게 향한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성경을 떠나면 인간은 결국 하나님을 몰라보는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국 죄성으로 인하여 성경을 떠나서는 그 스스로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은 위와 같은 현상을 성경을 인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향하여 그녀의 백성과 모든 백성이 알지 못하는 것에서 예배를 드리되 유대인만이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말씀하신 것도 여기서 나온 것이다(요4:22).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은 무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말씀을 떠나

59) *ibid.*, 102.

60) *ibid.*, 150.

61) 이오갑, 「칼빈의 종교개혁과 신학원리」 「말씀과 교회」 제26호 (2000), 127.

62) 존 칼빈, 「기독교 강요(1)」, 151.

서 하나님을 찾았으므로 필연적으로 공허와 오류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sup>63)</sup>

즉, 성경에 근거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하나님께 정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며, 또한 성경을 통하여 인간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것이다.

### 2.2.2. 칼빈의 말씀 개념

말씀의 기능은 앞서 나타낸바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게 함과 동시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이다. 칼빈의 이러한 말씀의 구성은 말씀을 율법과 복음의 2가지 형태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즉, 율법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자신이 원죄의 상태임을 깨닫게 되어 율법은 인간 스스로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며, 이것으로 인간은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말씀 가운데 다른 하나인 복음, 즉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인해 인간은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이 복음이 인간을 죄에서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말씀이며 이것이 곧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인 예수 그리스도이다.

따라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되 창조주로서만이 아닌 구속주로도 알아야 한다.<sup>64)</sup>

이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율법을 인식해야 하며 이 율법을 인식하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새 약속으로 향할 수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직 성경 속에서 자신에 관한 실제적 지식을 나타내기 때문이다.<sup>65)</sup>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칼빈의 “믿음의 정의”는 성령이 영혼을 조명하여 인식시키고 성령이 영혼에 각인(刻印)시켜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그 내용이 그리스도의 속죄공로다. 이 그리스도의 속죄공로를 인간이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깨닫고 성령의 각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확신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원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또한 그것을 지키는 신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칼빈이 말한 믿음의 기본 구조이다.

---

<sup>63)</sup> ibid., 155.

<sup>64)</sup> ibid., 151.

<sup>65)</sup> ibid., 150.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동작이다. 즉, 성부의 동작, 성자의 동작, 성령의 동작이다. 그 하나님이 동작해서 나를 믿음의 상태로 일단 만들어 놓는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게 소유가 되는 것이며, 은혜가 내게 들어와서 이제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 2.2.2.1. 말씀과 성령

칼빈이 이해하고 있는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역사가 일어나는 방식은 성령의 조명으로 되어지는 것이다.

“성령의 중심되는 사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말씀들을 모두 생각나게 하는 일을 지정하셨다. 분별의 영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하지 않는다면 빛이 눈 먼 자에게 비쳐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성령의 비취주심이 곧 우리의 예리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옳은 말이다.”<sup>66)</sup>

따라서 말씀과 성령은 불가분의 관계다. 성령의 조명을 받으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는 것이다. 성경이 갖는 권위의 근거는 성령이 증거하는 구조이고, 그것에 내 영혼이 감화되면 의심의 여지없이 다른 가능성은 100% 배제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데로 확신하게 되고, 그러면 영혼은 마땅히 순종하게 되므로 당연히 권위를 갖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이 없이 성경은 죽은 글자인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도 이성으로 납득이 되지만, 성령 없이 이성으로 율법만 들었을 때는 자신을 확인해보면 다 어긋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그는 괴로움과 공포, 거기에 시달리며 끝나게 된다.

“성경이 그 자체 위엄 때문에 존경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속에서 확증되기 전에는 진정으로 우리를 감동시키기지 못한다. 우리는 성령의 조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판단에 따라 믿는 것이 아니다.”<sup>67)</sup>

그래서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에 대한 은총과 확신이며, 이것은 성령의 감동이

<sup>66)</sup>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김충호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12.

<sup>67)</sup>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163.

있어야 되는 것이다. 즉,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이 진심으로 성경을 신뢰하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증명한다는 것이다.

“성령이 내면적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리 길을 마련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에 침투할 수 없다.”<sup>68)</sup>

칼빈은 위와 같이 인간이 성경을 안다고 할 때, 그것은 성령의 조명으로 말미암아 인식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성경을 신뢰하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이다. 즉, 인간은 성령의 조명으로 성경을 읽을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인치시다’ 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 말씀을 신성불가침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며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시고, 신실하신 분이며, 또한 성경을 읽어보니 또 그렇게 적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본격적인 믿음을 발생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이성이나 판단 그리고 억측에서가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높은 근원, 곧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서 우리의 확신을 찾아야 한다.<sup>69)</sup> 인간의 정신으로만 본다면 의심이 없는 지식은 불가능하며, 의심이 섞여 있다면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확실히 믿을 수 있으려면 우리의 정신은 다른 방법 즉, 성령으로 조명되고 강화되어야만 한다.

#### 2.2.2.2. 말씀과 믿음

믿음의 기초는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말씀이다. 그러므로 이 믿음과 말씀의 관계로 인한 결과가 구원이다.<sup>70)</sup> 말씀, 즉 하나님의 약속 내용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며 이것이 실현되려면 최소한 2가지가 있어야 됨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약속하신 주체의 신실함, 즉 하나님의 신실함이다. 둘째, 이 약속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믿음은 ‘말씀’이라는 곳에서 나오는 결과(=열매)인 것이다. 말씀이 원인이며, 하나님의 이름이 말씀이고, 그 이름을

68)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62.

69)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161.

70)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56.

알면 열매로서 결과로서 소망이 우리 속에 생기는데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기대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신실하신 이름이요, 능력이 이름’을 담고 있는 것이다.<sup>71)</sup>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의 사색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의 인자하심을 증거하실 때에 생기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친히 증거하심에 따른 결과로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에 내가 신뢰하고, 하나님이 능력있다는 것에 내가 의지하므로, 내게서 하나님의 그러한 사실이 확인된 상태를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따라서 믿음과 가르침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런데 이 믿음을 복음에 국한시킨다고 할 때, 믿음은 복음(=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렇다고 율법, 즉 구약성경을 다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다. 보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현현(顯現)이 복음 속에서 계시되었으므로 ‘믿음이 옴으로써 율법이 폐하여졌다’라고 표현하는 것이다. 그것은 ‘새롭고도 특별한 가르침’을 의미한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하는 그 가르침은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교사가 되신 후에 이러한 가르침을 통해 아버지의 자비하심을 보다 분명하게 계시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더욱 확실하게 증거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약도 담고 있는데 그것을 더 분명하게 드러낸 것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며, 복음 즉 신약인 것이다.

### 2.2.2.3. 일하는 말씀

칼빈의 말씀 개념에서 말씀은 단순히 텍스트에 머무는 것이 아니다. 종교개혁 당시 성경은 교회의 회의를 통해 성경에 인정하는 만큼의 중요성을 갖는다는 아주 그릇된 생각이 널리 지배하고 있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영원하고 신성한 진리가 사람들의 결정에 의존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모순된 것임을 칼빈은 지적하는 것이다.<sup>72)</sup>

따라서, 종교개혁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바 말씀은 실제 역사가 되어짐을 말한다. 이것이 일하는 말씀의 개념이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무한히 거대한 이 천지를 지탱하신다. 때로는 단순한 그의 고갯짓 신호만으로도 천둥을 일으켜 하늘을 뒤흔들어 놓으시며, 번개로 모든 것을 뒤 흔들고, 불꽃으로 대기 전체를 태우신다. 때로는 여러 가지 폭풍우로 대지를 휘저어 놓으시며 그가 원하실 때에는 순식간에 그것들을 잔잔케 하신다. 그리고 파도가 높게

71) *ibid.*, 56.

72) 정규남, “칼빈의 성경관” (정규오목사 은퇴기념 논총, 광신대학교, 1999), 93.

일어 계속 땅을 파멸할 것같이 보이는 큰 바다를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것을 견제하시며 때로는 심한 폭풍을 일으켜서 그것을 놀라운 방법으로 격동시켰다가는 다시 잔잔하게 하기도 하시는 것이다.”<sup>73)</sup>

따라서 칼빈은 ‘말씀을 다만 공중에 던져진, 하나님 바깥 편에서부터 나온 단지 일시적인 덧없는 소리만으로 상상하는 것과 또 족장들에게 주신 말씀과 모든 예언이 다 이런 종류의 것이었다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불합리한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는 것이다.<sup>74)</sup>

### 2.2.3. 칼빈의 믿음 개념

칼빈의 믿음 개념에 있어 그는 인간이 무엇인가에 설득된 상태로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성령이 동반되는 개념, 즉 설득되어서 거기에 감화되어 나가며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감화(感化)되어서 따라 나가고, 순종하고, 결합되는 상태가 인간에게서 나타날 때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며, 그리스도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온 상태를 또한 믿음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다.

믿음이 지향하는 이러한 목표가 뭔가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그리스도이다. 복음에 나타난 대로 하나님이 직접 가르쳐주시는 것의 그리스도이다. 여기서 빗나가게 되면 믿음은 고유한 본질을 잃게 되는 것이며,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여기서부터 발생하는 것이 미신의 현상이다. 칼빈이 표현하는 미신이라는 개념은 사람들이 신적인 것을 어떤 근거가 없이 마음대로, 즉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준 계시를 떠나서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하고 꾸며대는 것이다.<sup>75)</sup>

따라서, “오직 성서로만“은 사람들이 마음대로 상상하고, 꾸며내고, 만들어내고 하는 그런 또 하나의 오류인 미신에 대항하기 위한 것이다. 그것을 종식시키고자, 칼빈은 하나님의 계시와 그 계시의 결과들, 특히 성경을 강조하는 것이다.<sup>76)</sup>

즉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다.<sup>77)</sup>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나타내시고

73)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132.

74) *ibid.*, 238-239.

75) 이오갑, “칼빈의 종교개혁과 신학원리”, 117-118.

76) *ibid.*, 123.

77)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23.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는 것이다. 말씀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그 자신을 알게 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 믿음이 생기며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신뢰가 생기는 것이다.

### 2.2.3.1. 성령의 역사로서의 믿음.

칼빈에 의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은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얻어진 기술이 아니며, 교의학적 전제에 의하여 얻어진 통찰도 아니다.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 자신으로부터 내려진 무상의 은사이다. 성령에 의하여 조명받은 신자에게 있어서 영감과 조명의 순간은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다.<sup>78)</sup>

따라서, 성령님이 교사로서 인간에게 하시는 것은 그리스도가(=구원의 약속)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먼 눈을 열어 성경이 이미 가지고 있는 진리의 분명한 증거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내적 증거가 필요한 것이다.<sup>79)</sup> 또한 사람들에게 증거하시는 일이 성령이다. 하나님만이 그 자신의 말씀 안에서 자신에 대한 충분한 증인인 것처럼 또한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신되기까지 말씀은 인간의 심정 속에서는 결코 신뢰심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경의 권위는 성령의 내적 증거에 의해 확증된다.<sup>80)</sup>

또한 성령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그를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삶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sup>81)</sup>

그러므로, 성령은 인간이 성경에 묘사된 구원의 약속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설득되도록 가르치시므로 인간은 설득되는 것이다.(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요한1서 3:24)

따라서 믿음이란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인간에게 가르치는 것에 의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를 확고하게도 확실하게 아는 것이다.

### 2.2.3.2. 믿음과 말씀

믿음과 말씀 사이에서 말씀의 기능은 마치 태양광선과 같다. 광선의 근원인 태

78) 조봉근, “칼빈의 성령론” (정규오목사 은퇴기념 논총, 광신대학교, 1999), 248.

79) 이은선, “칼빈의 성령론” 「한국개혁신학논문집」 제2집 (1997), 234.

80)곽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교회와 신학」 제4호 (1971), 171.

81)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에서 사용된 성령의 조명” 「신앙과 학문」 (1998), 105-106.

양으로부터 태양 광선을 분리시킬 수 없듯이, 태양이 근원이고 광선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것인데 말씀이 근원이고, 믿음이 광선인 것이다. 이러한 관계를 칼빈은 인간이 사물을 볼 때 태양으로 인하여 정확히 볼 수 있음을 증거로 삼는 것이다.

“만일 우리가 대낮에 땅을 내려다보거나, 주위에 있는 어떤 사물들을 본다면, 우리는 자신이 가장 강하고 가장 예리한 시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나 일단 우리가 눈을 들어 태양을 똑바로 쳐다보게 될 때, 우리의 시력은 당장 그 큰 광채로 말미암아 눈이 부시고 혼란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sup>82)</sup>

따라서 인간이 태양으로 인하여 사물을 정확히 보듯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정확히 인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칼빈은 말씀과 믿음의 관계를 근원과 거기서부터 나오는 어떤 열매, 이런 식으로 파악하고 있다.<sup>83)</sup>

#### 2.2.4. 칼빈의 중생개념

칼빈은 중생을 회개의 상태로 보고 있다. 즉, 믿음에 의한 중생이야말로 진정한 회개를 의미한다는 사실이다. 회개와 죄의 용서 곧, 새로운 생활과 거저 얻는 화해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sup>84)</sup>

따라서, 중생이 없다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이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과 화해가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칭의가 일어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죄의 용서 곧 화해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는 중생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칭의와 중생의 이 두 은혜는 믿음에 의해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sup>85)</sup>

칼빈이 말하는 중생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회개와 죄의 용서에 대한 2가지 부분을 함께 논해야 한다. 믿음을 통하여 이 둘을 얻게 된다는 것은 중생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은 분리 될 수 없음을 말한다.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와 화해되며, 또한 믿음을 통하여 인간은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는

<sup>82)</sup>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101.

<sup>83)</sup> *ibid.*, 55.

<sup>84)</sup> *ibid.*, 78.

<sup>85)</sup>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 「복음과 신학」 제1집 (1996), 39.

중생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 이 부분이 루터, 웨슬리와 차이점이다. 즉, 루터와 웨슬리의 경우 회개, 믿음, 칭의, 중생, 성화의 구원론 순서에 있어 칼빈은 믿음이 있고 회개가 있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칼빈의 주장은 먼저 칼빈이 무엇을 주장하려는가에 대한 초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칼빈은 믿음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를 철저히 보안하고자 믿음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칼빈의 흔적은 다음과 같이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보다 회개가 선행한다고 하며, 회개가 믿음을 따르거나, 나무의 열매같이 믿음에서 생긴다는 것을 부정한다. 이런 사람들은 회개의 능력을 깨달을 일이 없고 사소한 이유로 이런 생각을 한다.”<sup>86)</sup>

칼빈이 말하는 중생의 삶은 이처럼 믿음으로 인한 회개, 즉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인간이 또한 믿음으로 인하여 그 삶을 새로이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믿음에 의한 오해를 방지하려는 것과 동시에 믿음에 의한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중생의 삶을 묘사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 2.2.4.1. 복음에 근거한 회개

칼빈이 말하는 믿음에 의한 회개는 그 근거를 복음에 두고 있다. 즉, 인간이 믿음으로 말씀을 들었을 때 비로소 회개가 생겨남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말씀을 들음으로 인간은 회개를 하는 것이며 이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기에 칼빈은 이러한 과정을 결국 믿음에 의한 회개로 말하려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씀을 안다는 것은 인간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기 전까지는 회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회개의 근원이 믿음에 있다고 할 때에, 우리는 회개를 하게 만들기까지 어떤 시간의 공간적 사이가 있다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뜻은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지 못하면 사람은 진심으로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밝히려는데 있다. 그러나 우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는 자기가 하나님의 것임을 참으로 믿을 수 없다.”<sup>87)</sup>

86)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79.

87) *ibid.*, 79.

따라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는 인간이 믿음으로 말씀에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 2.2.4.2. 율법의 회개와 복음의 회개

칼빈이 말하는 중생의 삶은 믿음으로 이루어진 상태를 말하는 것이며 이것은 점차 성화로의 삶을 지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믿음으로 인한 회개를 말할 때 2가지의 현상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 곧 죽임(mortification)과 살림(vivification)이 그것이다.

죽임으로서의 회개 즉, 인간이 죄를 인식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알게 되면 슬피 하며 무서워하게 되고, 또한 죄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그는 죄를 미워함과 동시에 죄인인 자신을 몹시 싫어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한 사람은 곧 자신이 멸망 받을 존재라는 것을 알기에 낙담하여 떨어져 용기를 잃고 절망 상태에 빠지게 된다.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통회(contrition)'라고 묘사한다.<sup>88)</sup> 이러한 죽임은 성경에서 율법 하의 회개로 나타난다.

죄인이 율법을 들었을 때 죄의 가책으로 상처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하여 떨어져 그 불안한 상태에 붙잡힌 채 빠져나오지 못하기에 율법 하의 회개로 묘사되는 것이다.

살림으로 해석되는 회개는 죽음으로서의 인간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일어나며 회복하는 것으로 곧 믿음에서 생기는 위안이다. 즉, 그리스도를 통한 그의 자비와 은혜와 구원을 깨닫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대속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로 부터 자유케될 뿐 아니라, 다른 한편 하나님의 뜻에 자발적으로 기꺼이 순종함으로써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다.<sup>89)</sup>

성경은 또한 이러한 회개를 복음 하의 회개로 나타내고 있다. 이 회개에 의해서 죄인은 큰 고통을 받지만 고통을 이기고 일어서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자기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한 약과 공포심에 대한 우로와 불행에 대한 피난처로 삼게 된다.<sup>90)</sup>

따라서 칼빈이 말하는 회개는 2가지로 세분화된 것이며 믿음이 적용되는 회개

---

88) *ibid.*, 81.

89) 이상훈, "칼빈의 율법개념과 개혁교회 전통" 『한국교회사학회지』 제6집 (1994), 9

90)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81.



는 죽임이 아닌 살림 즉, 복음 하의 회개상태에 있는 것이다.

### 2.2.5. 칼빈의 성화 개념

칼빈의 성화 개념에 있어 먼저 인간은 성령이 우리 안을 조명하심으로 말씀이 각인되어 이것으로 그리스도를 실제 인식하게 되고, 이것으로 내 영혼이 변화되어 그 상태에서 행동이 나오게 되므로 이것을 성화의 상태로 묘사하는 것이다.

즉, 성경이 의도한 대로 영혼이 변화되며 이 영혼에서 나오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성화의 삶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화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오직 성령의 내주로 그 능력이 우리의 육을 날마다 죽일 때 성화는 가능한 것이다.<sup>91)</sup>

#### 2.2.5.1. 성경에 의한 삶

성화의 삶에 있어 이것은 철학자들이 정해놓은 일반 도덕적인 삶과는 다른 개념이다. 성화의 삶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인되는 것이며 이러한 방법은 지극히 아름답고 더 정확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화는 영혼의 변화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이 변화를 주도하는 것이 바로 말씀인 것이다. 칼빈은 이러한 철학과 말씀에 대한 근본적 차이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어떻게 규제할 것이냐를 서술함에 있어서 철학자들은 바른 것과 고상한 것의 한계를 정하고 거기서부터 개개인의 의무와 다양한 덕목을 끌어내지만, 성경에는 이 문제에 대한 고유의 질서가 있으며, 그 처리 방법이 지극히 아름답고 모든 철학적 방법보다 훨씬 확실하다. 하나님의 영은 솔직하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며, 철학에서 유추되는 어떤 조직적 방법을 부단히 따르신 것이 아니다.”<sup>92)</sup>

따라서 성화의 삶은 이성의 논리 전개가 아닌 가장 깊은 영혼의 문제이다. 인간의 경험이나 이성의 탐구로 결정되어지는 삶의 전개방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성령의 조명과 더불어 비취진 말씀의 각인이 그 사람의 영혼을 변화시킴으로 구체적인 성화의 삶이 전개되는 것이다.

91)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 41.

92) 존 칼빈, 「기독교 강요(1)」, 194.

### 2.2.5.2. 자기 부정

성화의 삶은 말씀으로 인하여 변화된 영혼에게서 나오는 삶이다. 따라서 인간은 그 자신이 주인이 아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이다. 즉, 내 안의 옛 사람이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상태가 된 것이다.<sup>93)</sup>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행동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부정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께는 헌신함으로써 자기 부정을 나타내는 바,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결정과 판단에 맡길 뿐만 아니라 하고자 하는 것까지도 양심적으로 온통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다.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지 항상 하나님을 우러러 볼 줄 아는 사람은 동시에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하기 때문이다.<sup>94)</sup>

이러한 옛 사람의 죽음을 칼빈은 자기 부정의 원칙이라고 정의하는바 이것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웃 사랑에 대한 태도가 나올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sup>95)</sup> 여기에서의 자기 부정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으로만 가능하다.<sup>96)</sup>

또한 자기 부정에 의한 성화의 삶은 이웃 사랑에 있어 이 대상이 사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형태로 행하기에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성경에서도 묘사된바 모든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며, 그 형상에 대해서 경의와 사랑을 표시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성화에서조차 이러한 이웃을 향한 삶에서 이것은 인간을 바라보며 나오는 행동이 아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이러한 행동은 전혀 무가치할 뿐이며 성화라는 것이 성립될 수 없는 것이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형태로 말미암아 이웃 사랑이 실천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칼빈에게 있어서 자기부정은 한번으로써 영원히 끝나는 그런 유일회적인 사건이 아니다. 그것은 신자들의 삶이 지속되는 동안 언제나 또 다시 이루어져야 하는 하나의 지속적인 요청인 것이다.<sup>97)</sup>

---

93) *ibid.*, 201.

94) *ibid.*, 203.

95) *ibid.*, 205.

96) 이오갑, “칼빈의 종교개혁과 신학원리”, 123.

97) *ibid.*, 132.

### 2.3. 존 웨슬리의 「표준설교」에 나타난 믿음개념 분석

웨슬리의 「표준설교」에 나타난 믿음의 개념 연구는 「존 웨슬리 설교선집(I)」, 이선희역 (대전: 복음출판사, 2002)에 실려 있는 17편의 설교를 토대로 하였다. 여기에 실린 17편의 설교는 구원론을 중심으로 인간론, 기독교론, 구원의 방법, 회개론, 칭의론, 중생론, 성화론으로 구성되어 각 설교에서 믿음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잘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원론의 각 진행 과정마다 해당되는 설교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구원의 전체 테두리 내에서 차지하고 있는 믿음의 개념을 말하고자 한다.

#### 2.3.1. 웨슬리의 인간 이해

웨슬리의 인간 이해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으며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묘사해 주고 있다. 인간의 구성요소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물질적 재료를 통해 신묘막측(神妙莫測)하게 만드신 것이며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인간은 비로소 육과 영의 두 부분으로 나뉘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인간의 구분 모습이다. 또한 웨슬리가 인간의 죄성을 말하고자 할 때에는 육적인 죄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죄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이 곧 원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현상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 2.3.1.1. 인간의 구성요소

웨슬리의 인간 이해에 있어 그는 인간을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만드신'(내가 주께 감사하옵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시139:14) 하나의 기계로 보고 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의 흠을 사용하여 이것들의 분자를 상호 결합시켜 인간의 각 기관을 만드셨다고 말한다. 즉 흠, 물, 공기, 불의 네 가지 요소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이지만 이러한 재료 자체가 무엇인가를 판단(Judge)하거나 사물에 대해 추론(reasons)하거나 어떠한 활동에 대해 반추(reflect)하지는 못한다는 사실이다.<sup>98)</sup> 이처럼 사고하는 원리는 인간의 또 다른 부분인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또하나의 인간 즉, 영혼이

<sup>98)</sup>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인간이란 무엇인가(What is Man?)」, 이선희역 (대전: 복음출판사, 2002), 99~100.

다.

웨슬리는 인간의 이해에 있어 인간은 몸(body)과 영혼(soul)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인데, 몸은 일시적인 것으로서 나의 본질이 아니며, 나의 본질 즉 나의 정체성은 오직 나의 영혼에 있다는 것이다. 이 영혼이 나의 몸을 다스리는 내적 원리로서 외적인 육을 통제하는 것이다.<sup>99)</sup> 육을 통제하는 기능으로서 영혼(soul)은 지(the Understanding), 의(the Will), 정(the Affection), 자유(the Liberty)로 구성되어 있는 무엇이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인 것이다.<sup>100)</sup> 즉 지, 정, 의, 자유로 구성된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과 같은 것이며, 인간이 죄를 범한다는 것은 이 영혼이 죄를 범하는 것이고,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영혼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웨슬리가 말하는 구원은 철두철미 영혼구원인 것이다.

### 2.3.1.2. 인간의 원죄

인간이 죄를 짓고 그 결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다는 것은 곧 영혼이 죽게 되었다는 것을 말한다. 웨슬리는 이와 같은 사실을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에서 나타내 주고 있다.

“인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너는 그것을 먹지말라’고 명령하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이다. 그 날에 그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대에 의하여 정죄(condemned)되었다. 그 때 또한 그가 전에 경고되었던 바의 그 선고가 그에게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그가 그 열매를 먹는 순간에 그는 죽은 것이다. 즉, 그의 영혼이 죽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이다. 그의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는, 마치도 육체가 영혼과 분리되어서는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더 이상 생명을 가질 수 없는 것이다.”<sup>101)</sup>

따라서 이러한 영의 죽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의 눈이 멀어짐으로 묘사되고 있다. 아담의 타락 이후로 죄가 들어오게 됨으로 모든 인간의 본질인 영혼이 나면서 순전히 악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악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혼의 부패 현상은 영혼의 구성요소인 지, 의, 정, 자유의 부패를 말하며 이것이

<sup>99)</sup> ibid. 인간이란 무엇인가(*What is Man?*), 102.

<sup>100)</sup> ibid. 신생(*The New Birth*), 377.

<sup>101)</sup> ibid.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315.

곧 원죄의 상태이다. 따라서 원죄 하의 상태인 인간은 그 영혼의 기능이 하나님께 대하여 상실한 상태인 것이다. 웨슬리는 인간이 이러한 원죄 상태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성경을 인용하여 나타내고 있다.

“성경의 말씀은 이렇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모든 인간이 본질적으로 죄인이 되었다’, ‘아담 안에서 모두 죽었다’, 영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의 생명과 형상을 상실했다, 타락하고 죄인이 된 아담이 ‘그 자신과 같은 모양의 아들을 낳았다’, 그가 다른 형상의 아들을 낳는 것은 불가능했다. ‘불결한 것으로부터 누가 순결한 것을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본질적으로’, ‘범죄와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다’, ‘이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 그러므로 ‘진노의 자녀들이다’, ‘나는 죄악 가운데서 조성되었으며, 나의 어머니가 나를 죄 가운데서 잉태하셨다’,고 모든 인간은 말할 수 있을 것이다.”<sup>102)</sup>

따라서 인간의 원죄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죽은 상태이다. 웨슬리는 이와 같이 부패된 영혼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결국 자신의 지식으로 가득한 교만한 상태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된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세상 사랑으로 향하게 된 상태의 인간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 2.3.2. 웨슬리의 말씀 이해

웨슬리의 설교에서 나타나는 말씀은 곧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텍스트적 개념이 아닌 영혼 구원에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말씀이다. 이 구원의 약속인 말씀을 인간이 믿음으로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죄의 용서와 함께 구원의 단계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 구원의 약속인 말씀이 곧 그리스도이며 영혼은 이 그리스도의 의(義)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다.

#### 2.3.2.1. 구속자로서의 그리스도

인간의 원죄 상태에서 그는 하나님에 대한 영혼의 모든 기능이 부패된 상태에 놓여 있다. 영혼의 부패된 상태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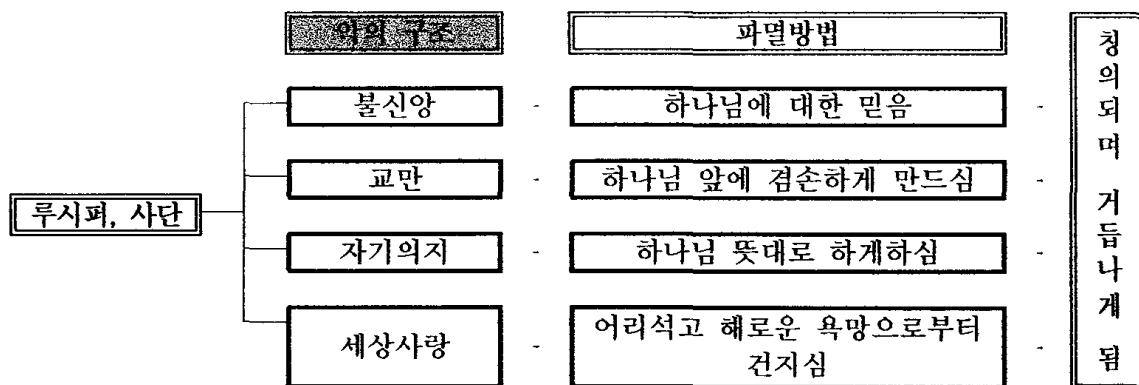
<sup>102)</sup> ibid. 원죄(*Original Sin*), 112-113.

된 상태이므로 나오는 행동 역시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행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마귀의 일들’이다. 이러한 마귀의 일들에 대해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마귀는 죄의 창안자다. 마귀는 그의 자유를 오용하여 악을 피조세계 안으로 도입한 최초의 존재다. 그는 비록 천사장은 아니었지만, 최초로 그 자신을 과대평가하도록 자기가 자기를 유혹하고 유혹당한 존재다. 그는 자유롭게 이 유혹을 따라갔다. 그리고 처음에는 교만에 굴복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의지(self-will)에 굴복했다.”<sup>103)</sup>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완전한 상태, 즉 본질적 형상(=영혼)과 특히 ‘의와 진정한 거룩’으로 충만한 도덕적 형상을 주셨다. 그러나 마귀가 아담을 유혹하여 타락시키고 이 하나님의 도덕적 형상을 완전히 상실하게 하고, 하나님의 본질적 형상(=영혼)을 근본적으로 왜곡되게 하고, 그래서 인간의 영혼을 악의 구조 안에, 즉 불신앙과 교만 및 자기의지와 세상사랑 안에 들어가게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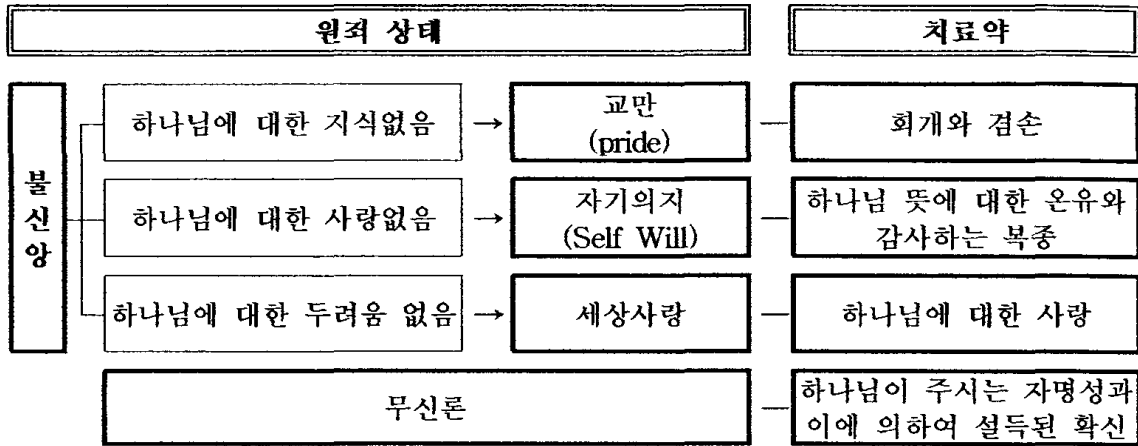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들’을 파멸하기 위함이며, 웨슬리의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을 근거로 하여 <표-1>과 같은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표-1>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악의 구조를 파멸하심으로 인간에게서 회복되어지는 하나님의 형상은 웨슬리의 설교 ‘원죄(*Original Sin*)’를 통해 <표-2>과 같은 구조를 나타낼 수 있다.

<sup>103)</sup> ibid.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 143.



<표-2>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이 이러한 인간의 상태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것이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는 것, 즉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의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회복시키시는 것이며, 영혼이 직관적으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는 우리의 이해력의 눈(the eyes of our understanding)을 열어주시며 또한 빛을 비추신다. 어둠으로부터 빛이 비추라고 명령하신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신(神)이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 놓았던 베일을 걷어치우신다. 그러면 우리는 그 때 일련의 추론(reasoning)으로써가 아니라, 일종의 직관(intuition)으로써, 즉 직접적인 보는 것(a direct view)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그 죄들을 나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보게 된다.”<sup>104)</sup>

이러한 영혼의 부패를 고치는 방법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주시는 자명성과 이에 의하여 설득된 확신이며 이것이 바로 웨슬리가 말하는 믿음의 기본구조이다. 즉, 믿음을 통하여 무신론을 고치시고, 회개와 겸손을 통하여 교만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유하며 감사하는 복종을 통하여 자기의지를 고치시고, 하나님의 대한 사랑을 주심으로써 세상사랑을 고치신다.

<sup>104)</sup> ibid.,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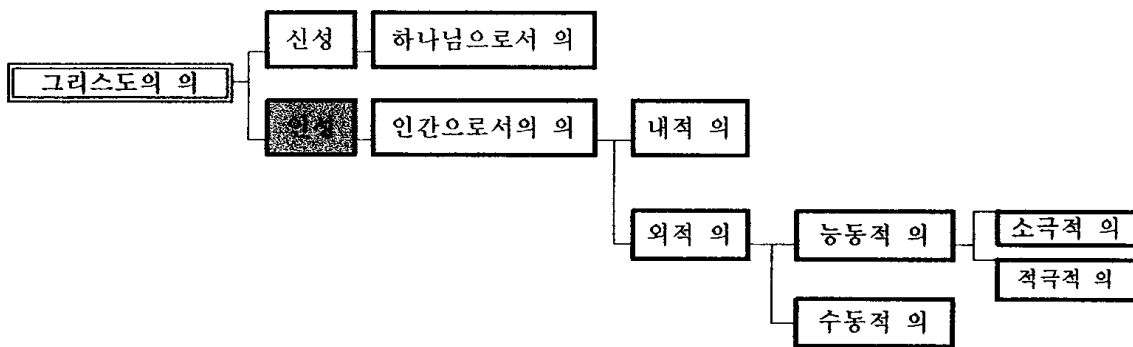
### 2.3.2.2. 의(義)의 전가

인간의 영혼 구원은 그가 칭의 받았다는 것을 말한다. 즉 영혼이 의롭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것은 인간의 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주체며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구원에 필요한 것을 손수 다 행하시고 값 없이 주시기에 인간이 그것을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다.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다음 사항들은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크신 자비와 은혜, 그리스도 편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는 것, 우리 편에서는 그리스도의 공로에 대한 믿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칭의에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막는 것이 아니라, 다만 마치도 우리가 칭의를 받아 마땅한 것처럼 오해하게 하는 인간의 의를 막는 것이다.”<sup>105)</sup>

따라서 인간이 행하는 모든 것으로도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100% 없다는 사실이 나타나는 것이며, 그와는 반대로 하나님은 인간을 능히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음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의(義)로서 나타내신다.

웨슬리의 설교 ‘主, 우리의 의(義)(*The Lord Our Righteousness*)’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의(義)를 구분하면 <표-3>과 같은 형태가 나타남을 볼 수 있다.<sup>106)</sup>



<표-3>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는다 할 때,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있어 인간은 그리스도의 신성적 의를 받는 것은 아니다. 신성은 영원하며 본질적이며

<sup>105)</sup> ibid. 主, 우리의 의(義)(*The Lord Our Righteousness*), 169.

<sup>106)</sup> ibid., 163-165.



불변하는 거룩성과 무한한 공의와 자비와 진리를 담고 있기에 만일 이것을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로써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 됐을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써 전가 받는 그리스도의 의는 그의 인성적 의다.

그 내용은 신성적 순결함과 신성적 공의, 자비, 진리다. 소극적 의는 그리스도가 어떤 외적 죄도 알지 못했고 행하지 않았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적극적 의는 아버지의 뜻 전체를 정확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하되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했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수동적 의는 이 세상에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 영혼이 떠나시는 순간까지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당하신 모든 일들을 포함한다. 그리하여 속죄를 이루신 공로를 의미한다. 믿음으로써 전가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의는 이 인성적 의 전체다.

이것은 인간이 믿음을 말미암아 받기에 인간의 내적 의는 ‘그의 영혼의 모든 능력과 기능에 인쳐진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다.”<sup>107)</sup> 이 영혼이 내적원리로서 몸의 언행을 주관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 그의 외적 의다. 외적 의에서 능동적 의는 죄를 범치 않은 소극적 의와 모든 언행을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순종으로 행하신 적극적 의로 구성된다. 수동적 의는 그가 시종일관 하나님의 뜻 전체를 온전히 감수하신 일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이 능동적 의와 수동적 의 전체가 죄인이 전가 받는 그리스도의 의다.<sup>108)</sup> 이것을 전가 받는 방법은 오직 믿음이다.<sup>109)</sup>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총애를 얻는(=칭의)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총애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성화) 방법이기도 하다”<sup>110)</sup> 즉, 믿음에 의한 그리스도의 의(義)의 전가는 이신칭의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성화에서도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이러한 그리스도의 의(義)를 믿음으로 받을 때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현상이며 이것이 곧 그리스도의 인성적 의의 상태가 된다는 사실이다.

그리스도의 의는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그가 믿을 때 곧 바로 전가된다. 믿음과 그리스도의 의는 불가분리의 관계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에 일치되게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11)</sup>

---

<sup>107)</sup> *ibid.*, 78.

<sup>108)</sup> *ibid.* 主, 우리의 의(義)(*The Lord Our Righteousness*), 165.

<sup>109)</sup> *ibid.*, 166.

<sup>110)</sup> *ibid.*, 168.

<sup>111)</sup> *ibid.*, 166.

### 2.3.2.3.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스도의 의(義)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즉, 인간의 여하의 행위나 그것에 기인한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노력들, 예를 들면 굶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거나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것을 주는 일들조차 믿음이 있든 없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올바른 교리(orthodoxy), 즉 올바른 견해들(right opinions)을 만들어 지키려는 것도 마귀와 마찬가지로 거의 교리적으로 올바르게 알 수가 있지만 이것 역시 이교도들도 행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의(義)를 믿음으로 인하여 이뤄지는 것이다.

“이것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것이 된다. 믿음으로써 너는 ‘진정으로 회개하고 그의 거룩한 복음을 진실하게 믿는 모든 자를 그는 용서하시고 무죄를 언도하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받는다. 하나님이 너의 마음에 ‘안심하고 힘을 내라, 너의 죄들이 용서되었다’하고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나라가 도래한다. 즉, 너는 의와 평화와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갖는다.”<sup>112)</sup>

### 2.3.3. 웨슬리의 믿음 개념

웨슬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깨닫게 하시는 자명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설득된 상태’(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라고 말한다.<sup>113)</sup> 이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자신에게 화해시키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 자신을 나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이에 의해 설득된 확신이다.<sup>114)</sup>

즉, 믿음이라는 것은 창조주, 섭리주, 심판주이신 삼위 일체 하나님과 그 가운데 우리의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본질적으로 이성(理性)의 인식능력을 초월하는 현실에 관하여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영혼에게 그것의 자명성을 깨닫게 하시고, 이에 의하여 우리의 영혼이 직관적으로 설득된 확신

<sup>112)</sup> ibid.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The Way to the Kingdom*), 208.

<sup>113)</sup> ibid. 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220.

<sup>114)</sup> ibid., 222.

의 상태인 것이다.

### 2.3.3.1. 믿음과 행위의 관계

인간이 구원의 상태, 즉 칭의받고 성화되는 것은 오직 믿음에 의한 것이다. 웨슬리는 이러한 믿음에 의한 칭의와 성화의 관계에 있어 행위의 위치를 언급하고 있다. 칭의받는 과정이나 성화의 삶에 있어 행위에 대한 것으로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때의 행위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이려는 것이다. 즉,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보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구원이 된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칭의 받기 전의 행위이며 칭의 받은 사람에게서는 선한 행위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의미를 웨슬리는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회개와 회개의 열매는 단지 우회적으로 필수적이다. 즉,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다. 그 반면에 믿음은 칭의를 받기 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직접적으로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믿음만이 칭의를 받기 위해 즉각적으로 그리고 가장 가깝게 필수적인 유일한 조건이다.”<sup>115)</sup>

즉, 믿음 갖길 원하는 사람에게 있어 행위는 필수적인 것이다. 이것은 믿음 갖길 원하는 사람의 자세를 말한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로서 믿음이 주어진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행위는 칭의 받기 전과 칭의 받은 후의 열매로써 당연히 나타나야 하는 모습인 것이다.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며 또한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실 마음과 힘을 주신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sup>116)</sup>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인간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모든 일에 진지하며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워야 하는 것이다.(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2:12)

“악을 행하기를 중단하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현재의 구원과 영원한 구원, 이 두

<sup>115)</sup> *ibid.*, 226.

<sup>116)</sup> *ibid.*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244.

가지가 모두 그것으로부터 나오는 바의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어 생기게 하시기를 만약 내가, 이미 주어진 은혜에 의하여, 열망한다면, 뱀을 보고 도망가듯이 모든 죄로부터 도망가라. 모든 악한 말과 악한 행동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피하라. 악의 모양이라도 피하라. 그리고 ‘선을 행하기를 배우라’. 선행을 열심을 다해 행하라.”<sup>117)</sup>

이것이 구원에 있어 인간의 행위를 중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다. 따라서 행위는 구원의 조건이 아닌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타내 보이는 모습인 것이다.

믿음이 있는 후의 행위에 있어서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인간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므로 당연히 행해야 하는 것이다. 웨슬리는 이러한 행위의 묘사를 성경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눅8:18)

“너희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일꾼들’이 되어야만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중단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는 변함없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규칙을 따라 시행된다: ‘가진 자에게는 더하여 주실 것이요, 가지지 않은 자로부터는’, 즉 이미 주어진 은혜를 사용하지 않는 자로부터는, ‘그가 분명히 가졌던 것조차 취하여 빼앗아 가실 것이다.’”<sup>118)</sup>

칭의 받기 전과 칭의 후의 행위는 이처럼 필수적이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에 있어 그 스스로 믿는 다는 착각 속에 빠져 행위를 계속하여 마치 구원받은 것 마냥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 웨슬리는 사람들의 이러한 오해의 상태를 묘사하여 ‘죽은 믿음이요 마귀의 믿음’일 뿐이라고 말한다.<sup>119)</sup>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러한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마귀의 믿음’이라는 것은 마귀들도 그리스도에 관하여 알고 있으나 진정한 믿음이 결여되었기에 여전히 저주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올바르게 진정한 기독교적 믿음이란 영원한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에 의

---

<sup>117)</sup> *ibid.*, 251.

<sup>118)</sup> *ibid.*, 260.

<sup>119)</sup> *ibid.* 거의 그리스도인(*The Almost Christian*), 278.

하여 구원되었다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to have a sure trust and confidence)을 갖는 것이다.<sup>120)</sup>

### 2.3.3.2. 행위계약과 은혜계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시고자 인간에게 나타내신 일종의 계약이다. 그리스도를 통한 계약은 인간이 죄성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상태이기에 맺어진 계약이다. 즉, 인간의 행위로서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기에 하나님 편에서 제시한 계약이 바로 은혜의 계약이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시대의(즉, 유대인의 시대 이전과 유대인의 시대 동안에, 그리고 그 뿐 아니라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신 이후의 시대에도) 인간과 더불어 세우신 것은 은혜의 계약이다. 이 은혜의 계약을 사도 바울은 여기서 행위의 계약에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다. 행위계약은 파라다이스[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맺으신 것이다.”<sup>121)</sup>

아담이 하나님과 맺었던 계약이 행위계약 즉 율법이다. 이 계약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피조 되었을 때의 거룩하고 행복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완벽히 지켜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담의 범죄 이후 이 행위계약을 지킬 능력이 인간에게서 상실된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 행위계약, 즉 율법은 지킬 수가 없게 된 것이다.

인간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나타내신 계약이며 이것을 이루실 이 또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계약이다.

“은혜계약은 우리가 칭의를 받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그리고 불가결하게 필수적인 것이라 하면서 무엇을 행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일체 없다. 오히려 그의 아들 때문에, ‘행함이 없는 경건치 않은 자를 칭의하시고’, ‘그의 믿음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는’ 그 분을 믿으라고 요구한다.”<sup>122)</sup>

---

<sup>120)</sup> *ibid.*, 279.

<sup>121)</sup> *ibid.* 믿음의 의(義)(*The Righteousness of Faith*), 288.

<sup>122)</sup> *ibid.*, 294.

따라서 행위계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대하여 완전하게 또한 지속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지금의 원죄 상태인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이다. 이에 반해 은혜계약은 인간이 하나님의 총애와 생명을 회복하기 위해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가능한 것이다.

### 2.3.3.3. 믿음에 의한 구원

믿음이 칭의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은 믿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행동이나 내면적인 노력도 칭의의 조건인 믿음이 될 수 없다. 앞서 나타난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자신이 깨닫게 하시는 자명성에 의하여 직관적으로 설득된 상태’(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sup>123)</sup>이므로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떠한 것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칭의의 유일한 조건은 오직 믿음인 것이다.

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곧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행하신 그리스도의 모든 의(義)를 믿는 것이다. 따라서 이 믿음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인간의 죄가 용서되며 하나님과 화해됨을 증거 또는 확신하게 하는 것이다.

“의롭다 칭하심을 받게 하는 믿음(justifying faith)은 ‘하나님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계셨다’(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후5:19)는 사실에 대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증거 또는 확신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죄들을 위하여 죽으셨으며, 그가 바로 나를 사랑하셨으며, 그 자신을 바로 나를 위하여 내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확신(a sure trust and confidence)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sup>124)</sup>

그러므로 믿음은 칭의의 필수적인 조건이며 유일한 조건인 것이다. 인간에게서는 오로지 죄책과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조금도 없는 상태이기에 인간의 것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에게서 의롭다함을 찾지 못하기에 칭의에 대한 믿음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sup>123)</sup> ibid. 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220.

<sup>124)</sup> ibid.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322.

터 출발되어지는 것이다. 인간이 이러한 믿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음 없음에도 하나님은 구원사역을 행하시기에 이것이 바로 은혜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총애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미 부여하신 모든 복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아낌없이 주시는 마음, 즉 총애로부터 오는 것이다. 이 은혜는 하나님 편에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요, 인간 편에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이 받는 것이다. 그것도 전적으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가운데 받는 총애의 사랑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하여 추호라도 당연히 받을 것으로 요구할 권리가 없기 때문이다.”<sup>125)</sup>

인간의 영혼은 아담 이후 그 기능에 있어 모든 것이 부패된 상태이기에 하나님 앞에 내놓을 만한 의(義)가 없으며 행위를 통한 업적도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간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이 됨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이것이 과연 ‘은혜 위에 은혜’라는 사실이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사랑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인간에게 더욱 분명하게 증거되는 것이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리스도가 죽으신 그 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다.”<sup>126)</sup>(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롬5:8)

그러나 믿음에 의한 구원에 있어 행위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믿음과 행위의 관계에 있어 오히려 모든 선행과 모든 거룩을 필연적으로 낳는 그런 믿음을 말하려는 것이다.<sup>127)</sup>(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롬3:31)

#### 2.3.4. 웨슬리의 중생 개념

중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혼이 구원받은 인간은 그 삶이 새로이 태어남을

---

<sup>125)</sup> *ibid.* 믿음에 의한 구원(*Salvation by Faith*), 343.

<sup>126)</sup> *ibid.*, 345.

<sup>127)</sup> *ibid.* 믿음에 의한 구원(*Salvation by Faith*), 359.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웨슬리가 말하는 신생(新生), 즉 새로 태어난 인간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이 새로 태어난 것이기에 이것은 어렵פות한 생각이나 인간 스스로의 관념으로 묘사되는 것이 전혀 아니다. 믿음에 의하여 새로 태어난 영혼은 자명한 자각 증세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즉 그는 ‘그의 이해력의 눈이 열린 것’(the eyes of our understanding)<sup>128)</sup>이다. 따라서 신생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명으로 인도하여 죄의 죽음으로부터 의의 생명으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이 영혼 안에서 일으키시는 위대한 변화인 것이다.<sup>129)</sup> 변화된 영혼의 상태는 육적이며 마귀적인 마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그 마음으로 바뀌어진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반응하듯 변화된 영혼 역시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이다.

#### 2.3.4.1. 중생의 증거들

믿음의 변화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영혼에게서 나타나는 증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능력을 나타내게 된다.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이 태어난 것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이 능력이라는 단어는 자녀로서 갖는 권리 또는 특권으로 번역된다. 자녀로서 갖는 특권은 결국 자기 자신에게 갖는 여러 가지 가능성들에 대해 포기하게 되며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고 신뢰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중생한 자의 증거이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나의 죄들이 용서되었고, 내가 하나님께 화해되어 하나님의 총애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내용으로 하는 확실한 신뢰와 확신이 있기에 그는 먼저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공로나 스스로의 신뢰를 포기하게 된다.”<sup>130)</sup>

따라서 중생한 자는 자신의 것에 대해 철저한 불신과 죄성을 인식함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마음으로 전적으로 하나님에게만 의지하게 된다. 이러한 믿음의 결과는 그 열매의 현상으로 죄를 이기는 능력(power over sin)이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모든 종류의 외적 죄를 이기는 능력, 곧 모든 악한 말과 행동을 이기는 능력이다.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않는

<sup>128)</sup> ibid.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 152.

<sup>129)</sup> ibid. 신생(*The New Birth*), 386.

<sup>130)</sup> ibid. 신생의 표징들(*The Marks of the New Birth*), 403.



다. 왜냐하면 그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이다.<sup>131)</sup>

또 다른 열매로서 평화(peace)가 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므로 그는 모든 죄가 도말된 상태이다. 이것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롬5:1)

이제 그는 믿음에 의한 열매로써 또한 소망과 사랑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이 소망은 이 세상에 대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소망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한 상속자인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동일한 상속자이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다.

마지막으로 믿음에 의한 열매로써 그는 사랑의 특권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사랑에 대한 특권이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지속적으로 바라보며 일용할 양식과 그들의 영혼과 육신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간구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게 된다. 이것이 자녀에게 부여된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열매로서 이웃에 대한 사랑이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의 필연적인 열매는 우리의 이웃에 대한 사랑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각 영혼 모두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의 적들도 제외되지 않는다. 지금 ‘우리를 멸시하며 핍박하는’ 사람들도 제외되지 않는다. 이 사랑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듯이 모든 사람을 우리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이다.”<sup>132)</sup>

#### 2.3.4.2. 중생한 자의 특권

중생, 웨슬리에게 있어 신생으로 표현되는 사람이 갖는 특권을 묘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은 믿음으로 영혼이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이며 이들은 말 그대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들이다. 인간이 모태에 있을 때에도 그는 살아있고 숨을 쉰다. 하지만 공기에 접촉하는 감촉이나 주변을 보는 것 등은 그가 태어나기 전까지 전혀 알 수 없는 것들이다. 따라서 새로이 태어난 사람은 전혀 다른 환경에서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을 접하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sup>131)</sup> *ibid.*, 409.

<sup>132)</sup> *ibid.*, 420.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죄에서부터 건짐받은 것이기에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리며 죄에 대한 모든 유혹에서 그는 강하게 뿌리치려 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죄의 유혹에서 떠났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언제나 죄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는 하나님의 세력 안에 놓임 받았기에 기쁨과 안정감을 누리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는 온갖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그가 죄를 택하는 순간 그는 죄의 세력 안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그는 하나님의 고통스럽게 하는 음성에 등을 돌리고, 유혹자의 달콤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악한 욕망이 그의 영혼 안에 시작되며 퍼져나간다. 결국 믿음과 사랑이 사라져 버린다. 이제 그는 외적 죄를 지을 수 있다. 주님의 세력이 그를 떠났기 때문이다.”<sup>133)</sup>

결국 중생한 자가 죄를 짓는다는 것은 내적인 상태와 외적인 상태가 상호 연결됨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믿음은 있는 상태에서 내적으로 태만하거나 어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그는 내적인 죄를 짓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적인 죄로 말미암아 믿음이 상실되어 결국 외적인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 2.3.5. 웨슬리의 성화 개념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에게 있어 죄에 대한 문제는 더욱 민감해지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라고 해서 죄의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으로 생각하여 방관만 하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다. 웨슬리는 이러한 믿는 자들의 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강하며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되기까지는’, ‘정사들과 능력들’에 대항하여 싸워야 할 뿐 아니라, ‘육과 혈에 대항하여’, 즉 악한 본성에 대항하여, 싸움해야 할 필요가 있다.”<sup>134)</sup>

<sup>133)</sup> ibi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448.

<sup>134)</sup> ibid.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On Sin in Believers*), 456.

따라서 믿는 자들에 있어 죄의 대한 반응은 더욱 민감하다는 사실이다. 문제의 관점은 죄에 대한 인간의 관계성 여부이다. 칭의 받은 사람, 즉 중생한 사람은 칭의 받은 순간에 모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된 것인가? 그의 마음 안에는 죄가 전혀 없는 것인가? 그리고 그가 은혜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한, 그 후로도 계속 그런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이것이 정확히 해결되어야만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칭의 받은 사람의 상태는 혈과 육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난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로써 세상 안에 있는 부패로부터 깨끗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그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에 따라 온전히 반응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뿐만이 아닌 사람을 향해서도 악한 일을 행치 않으려고 살아가는 것이다. 따라서 칭의 받은 사람은 그 순간 외적인 죄나 내적인 죄 모두를 이길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sup>135)</sup>

그러나 이 사람이 모든 죄로부터 해방되어 그의 마음 안에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함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갈5:17) 즉, 중생한 자들 안에도 두 원리가 서로 대립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 2.3.5.1. 믿는 자들의 회개

회개와 믿음의 관계에 있어 회개는 믿음을 얻기 위한 것으로만 말하는 것이 아니다. 복음을 믿은 후에도 요구되는 회개와 믿음이 있다는 것이다. 최초의 회개와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 들어오기 위해 필수적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계속 은혜 안에 거하며 성장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수적인 것이다.<sup>136)</sup> 이러한 이유는 죄에 대한 이유 때문이다. 인간에게 있어 죄는 믿음을 얻은 후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이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개념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즉, 믿는 자들에게 있어 죄는 **지배(reign)**하지는 않지만, **남아 있다(remain)**.<sup>137)</sup> 이것으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 회개의 개념이 성립되는 것이다.

믿는 자들에게 있어 모든 죄가 다 사라졌다고 상상하는 그 순간 여전히 교만

<sup>135)</sup> *ibid.*, 460.

<sup>136)</sup> *ibid.* 믿는 자들의 회개(*The Repentance of Believers*), 483.

<sup>137)</sup> *ibid.*, 484.

(pride)이 있음을 느끼게 되고, 그의 마음 속에 여전히 자기의지(self-will)가 있음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 들은 모두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이기에 **세상에 대한 사랑(the love of the world)**도 함께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총애의 대상인 것과 그리스도가 자신의 모든 죄를 대신 갚아 주심을 알면서도 그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다시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또는 이생의 자랑’(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좇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좇아온 것이라-요일2:16)을 느끼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들이 갖는 회개의 마음이 있다. 그것이 **죄책(guiltiness)**과 **완전한 무력감(utter helplessness)**이다.

죄책(guiltiness)에 대한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피가 없었다면, 분명 사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을 것이라는 마음이다. 즉, 그 처벌이 속죄의 피로 인하여 여전히 처벌을 받아 마땅한 존재라는 사실을 철저히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다. 지옥에 해당되는 정죄를 받아 마땅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는 동안 그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계속하여 그리스도의 속죄를 기억할 것이기 때문이다.

**완전한 무력감(utter helplessness)**은 자신에게서 나오는 능력은 여전히 선을 행하거나 악에 저항하는 것이 전혀 없음을 인지하는 것이다. 믿는 자들이 선을 행하거나 악에 저항하는 힘은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닌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외적 조와 내적 죄를 모두 저항하여 정복할지라도, 그리고 매일같이 우리의 적들을 약화시킬 수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내어 쫓을 수는 없다.<sup>138)</sup>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은 여전히 회개가 뒤따르는 것이며 또한 이것들을 제압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전히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 2.3.5.2. 그리스도인의 완전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에서 완전한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완전의 개념이 인간 삶의 전체 부분을 차지한다면 그는 완전한 신이요 또한 완전한 인간인 그리스도와 같게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 받는다는 것도 그리스도의 신성적 부분이 아닌 인성적인 부분이므로 완전의 범주 또한 인성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이

<sup>138)</sup> ibid., 501.

다.<sup>139)</sup>

인성적인 부분에서 그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죄의 유혹이나 죄의 세력에 대한 접근조차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완전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 자신도, 육체 안에 계시는 동안에는, 심지어 그의 생애를 마칠 때까지 유혹을 받으셨다는 사실 하나만을 생각해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계속 지속되지는 않는다.<sup>140)</sup>

또 다른 의미에서 불완전함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각자의 한계점이다. 이것은 인간의 무지에 있어서 불완전함을 의미한다. 믿음에 의하여 의롭게 된 사람은 그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고 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고는 있다. 구원을 위해 필수적인 것들을 그는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그가 구원을 위해 필수적이지 않은 것들에 있어서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으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증거는 아니다. 단지 살아있는 인간치고 어떤 누구도 전능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무오할 수 없다는 사실의 증거일 뿐이다.<sup>141)</sup> 즉, 무지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정도로 그렇게 완전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점들(infirmities)이다.

“인간적 한계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적 한계점들’이라 마땅히 부를 수 있는 것들 뿐만 아니라, 도덕적 성격이 아닌 내적 및 외적 불완전한 점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컨대, 이해력이 약하거나 느린 것, 이해하는 것이 둔하거나 헛갈리는 것, 생각에 일광성이 없는 것, 상상력이 이상하게 활발하든지 또는 이상하게 느리든지 한 것, 또는 즉석에서 기억하는 능력이나 오랫동안 기억하는 능력의 결핍 같은 것이 인간적 한계점들이다.”<sup>142)</sup>

따라서 완벽한 완전이란 없다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신생한 사람, 중생한지 얼마 안 된 사람)조차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는 것이다. 그들은 지금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악한 생각들과 악한 기질들로부터 해방되었다는 의미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

139) *ibid.* 主, 우리의 의(義)(*The Lord Our Righteousness*), 164.

140) *ibid.*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525.

141) *ibid.*, 522.

142) *ibid.*, 523-524.

### 3. 루터, 칼빈, 웨슬리의 믿음 개념 비교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믿음에 대한 루터, 칼빈, 웨슬리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인간은 영과 육으로 구분되어지는데 이 영은 아담의 타락이후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전적 무능력의 상태가 되었으며 인간의 구원에 있어 말씀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치 못하고서는 구원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 말씀 또한 하나님이 자명하게 알려주실 때에만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사실이다.

즉,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영혼에게 알려주실 때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을 분석하면 다음과 같이 그 공통부분이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 3.1. 인간의 이해: 몸과 영혼

믿음을 인식하는 기관에 있어 인간을 영과 혼으로 구분 짓고 있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을 알아차리는 기관이 인간의 이성부분이 아닌 인간의 영혼, 다른 표현으로 마음, 내적인간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영혼의 전적 부패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것을 파악할 수 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루터에게서 인간의 전적인 부패, 특히 의지(Will)의 부자유를 말하고 있으며,<sup>143)</sup> 칼빈에게서는 인간 마음의 계속되는 망설임으로 흔들리고 있음을 묘사하여 의지의 부패성을 증거하고 있다. 더욱이 웨슬리에게서는 그의 설교 ‘원죄’(Original Sin)에서 인간 영혼의 부패 가운데 자기의지(self-will)라는 부패는 순종, 즉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온유하고 감사하는 것이 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므로,<sup>144)</sup> 인간 영혼이 하나님을 향하는 기능에 있어 기능적 상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인간의 육적인 부분인 이성으로는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믿음을 받아들이는 기관이 인간의 육체에 속한 이성 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자명하게 확신하는 영혼이라는 기관인 것이다. 이러한 내용에 있어 웨슬리는 그의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에서 ‘인간의 부패된 영혼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해력의 눈(the eyes of our understanding)을 열어주시며 또한 빛을 비추신다’<sup>145)</sup>라고

143)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37.

144)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원죄(Original Sin)」, 129.

145) ibid.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 152.

묘사하고 있으며, 칼빈 역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의 영혼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이를테면 새로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 이전에 눈을 멀게 했던 그 찬란한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된다.’라고 묘사하고 있다.<sup>146)</sup> 루터 역시 인간의 구분에 있어 영적본질과 육적본질로 나뉘어 말함으로 하나님의 것을 알아차리는 것은 영적본질이며 이 역시 성령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역사임을 말하고 있다.<sup>147)</sup>

따라서 이들 종교개혁가들의 인간이해는 인간의 육 즉, 이성이 아닌 인간의 영혼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믿음 역시 인간의 행동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 3.2. 성경의 이해: 일하는 말씀

종교개혁가들이 바라보는 성경은 일종의 텍스트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성경 말씀이 곧 일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여기서 비롯된 것이 또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점이다. 더욱이 이러한 사실은 말씀 외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며 이것 또한 이성의 추론이나 탐구로 이뤄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영혼에 각인 되어 자명하게 확신되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칼빈과 루터를 비롯해서 프로테스탄트(개신교) 전통에 있어서 설교 말씀은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다. 사실 설교 말씀을 듣고 성령의 조명과 감화를 받아 은혜와 신앙으로 구원 얻는 신자들이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확신하는 것이다.<sup>148)</sup>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묘사에서 이들 종교개혁가들은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것은 이루어 질 것이며, 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하시니, ‘빛이 있게 되었다’고 묘사하는바 성경을 하나님의 일하는 말씀으로 보고 있으며<sup>149)</sup>, 다른 설교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에서도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그가 ‘빛이 있으라; 그러니 빛이 있게 되었다’고 선언함을 예로 들고 있다.<sup>150)</sup>

<sup>146)</sup>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62.

<sup>147)</sup>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5.

<sup>148)</sup>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299.

<sup>149)</sup>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234.

칼빈은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사도들은 세상이 성자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으며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음을 언급하여 말씀이 성부의 영원하시며 본질적인 말씀이신 성자의 명령 혹은 위엄으로 이해되고 있음을 보고 있으며,<sup>151)</sup> 루터 역시 성경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이다. 그래서 어디든지 성경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다.<sup>152)</sup> 또한 루터는 복음적인 설교를 통하여 이제까지의 성인들의 전설과 도덕 설교의 형식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복음적인 설교는 전체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이다. 이것과 비교하여 인간의 모든 말은 쓸모없는 말인 것이다.<sup>153)</sup>

따라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믿음이 발생되어지는 근원으로서 오직 말씀을 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구원이 믿음과 행위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성경에 근거한 오직 믿음뿐이며 이 믿음 역시 말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말씀에 의한 믿음에 기대를 거는 것으로 설교에 최대의 관점을 두는 것이 성경적이며 또한 개신교의 구원형태인 것이다.

### 3.3. 믿음의 개념: 하나님의 행동

믿음은 인간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행동이라 할 때,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 추론하거나 탐구하는 현상 또는 인간의 행동으로 말미암는 인간에게서 생산되어지는 여하의 것들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인간 편에서는 어떠한 것들을 다 동원해도 알 수 없는 것이 믿음이며 이것은 오직 하나님에게로부터 오는 것임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믿음이라는 개념이 사람의 생산품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에서 믿음을 설명할 때 보이지 않는, 시각으로나 또는 외적 감관 중 다른 무엇으로도 감지되지 않는 '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자명한 확신, 하나님이 주시는 자명성과 확실하게 설득됨'(a divine evidence and conviction)이라 하는데

150) ibid.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 146.

151) 존 칼빈, 「기독교 강요(1)」, 239.

152) 문영주, "루터와 칼빈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관점" 「광신논단」 제2집 (1990), 21.

153) 김문기, "복음적 설교의 전형" 「루터 研究」 제15집 (2001), 63.



이것은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째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들의 초자연적 자명성, 영혼에게 나타내진 일종의 영적인 빛을 의미하며, 둘째로 그것을 초자연적으로 보는 것 또는 감지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즉, 믿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기인되어지며 이것은 영혼의 확신성이라는 점이다.<sup>154)</sup>

이러한 묘사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그는 믿음의 묘사에서 성령이 내면적 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비추심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55)</sup>

루터 역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일으키는 그 무엇이며, 믿음은 옛 아담을 죽이고 우리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모든 힘에 있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며 또한 믿음은 성령이 동반된다고 말하고 있다.<sup>156)</sup>

종교개혁가들의 믿음에 대한 관찰 역시 공통적으로 나타난바 믿음은 인간의 영혼에게 하나님이 전적으로 행하시는 일로서 그 방법이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믿음을 알고 탐구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전혀 불가능한 것이며 또한 믿음은 인간의 이성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동이며 이것을 인식하는 기관은 인간의 뇌(brain)가 아닌 인간의 영혼(soul) 다른 표현으로 마음(heart)이라는 것이다.

### 3.4. 말씀과 믿음의 관계: 말씀에 근거한 믿음

인간의 구원에 있어 이 믿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성경의 말씀에 충실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생산을 보게 된 것이며, 하나님을 말씀을 통하여 일하고 계심을 발견한 것이다. 믿음의 근거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말씀 외의 다른 것에는 전혀 기대를 걸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믿음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에 의해 발생되어지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믿음에 대한 오해는 믿음을 인간들의 덕목 정도로 생각하여 믿음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을 기대를 거는 현상들 또한 있다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들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며 이것 역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에 일치한다는 점이다.

154)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220.

155)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62.

156) 마르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20.

웨슬리는 그의 설교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The Way to the Kingdom)에서 믿음과 말씀의 관계를 묘사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에 ‘안심하고 힘을 내라, 너의 죄들의 용서되었다’하고 말씀하시자마자, 그의 나라가 도래한다고 되어 있고,<sup>157)</sup> 칼빈 역시 믿음과 말씀의 관계에 있어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에서 약속이 이뤄지는 방식을 설명함에 믿음과 말씀의 관계의 결과는 구원임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58)</sup> 루터 또한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에서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고 묘사하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과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sup>159)</sup>

즉, 이들 종교개혁자들이 파악한 말씀과 믿음의 관계에 있어 믿음은 말씀에서 기인되는 것이며 이 말씀 역시 하나님에 의해 인간의 영혼에게 확신되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말씀으로 말미암는 믿음 외에는 구원이 될 수 없음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들이 이성으로 생각해낸 구원의 형태들, 즉, 인간들이 고안해낸 여하의 다른 방법들에 있어 천주교에서 말하는 미사, 고백성사 등의 예배행위나 일부 자유주의 신학에서 주장하는 인간의 여하 행동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배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 믿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생산되어지는 선물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믿음 개념을 파악한 사람들은 믿음을 생기게 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칼빈, 루터, 웨슬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바 바로 설교라는 점이다. 즉, 설교를 통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인데 이것이 곧 성경에서 묘사한바 일하는 말씀의 개념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자체는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그 영혼을 동화시키며 말씀의 내용에 동화시킨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성령의 역사를 볼 때, 그리스도를 증거 한다는 내용에서 인간이 성령을 받아서 나간다고 하는 것은 인간이 귀신들린 것 마냥 무아지경으로 나간다는 것이 아니다. 칼빈의 묘사를 볼 때 인간이 뭔가 설득되어서 거기에 감화되어서 나간다는 것이다.<sup>160)</sup>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루터, 웨슬리와 같다. 감화되어서 따라 나가고, 순종하고, 결합되는 상태가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157)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The Way to the Kingdom)」, 208.

158)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56.

159)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11.

160)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11.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밖에 있지 않고, 내 안에 들어온 상태며 이것을 믿음이라고 부른다. 우리를 설득하려고 성령이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즉, 구원의 약속이 마음속에 스며들어오게 성경에 묘사된 구원의 약속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설득되도록 성령님이 교사로서 가르치니까 설득되는 것이다.(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한1서 3:24)

즉 우리가 안다는 것이 설득된 것인데 이것을 웨슬리는 evidence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명성으로 표현한 것이다.<sup>161)</sup> 자명성을 보는 순간을 빛이 나에게 비쳤다. 눈이 열렸다. 깨달아 알았다. 그래서 설득된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단어가 칼빈이 묘사한 '성령의 조명'인 것이다.

또한 웨슬리는 그의 설교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에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되어짐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로 하여금 의지하게도 하시고 또한 행하게도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임'임을 말하므로 말씀으로 인한 인간의 유익을 설명하고 있으며<sup>162)</sup>, 칼빈은 이러한 인간의 유익됨을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해진 사실에 기인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sup>163)</sup>

따라서 종교개혁자들이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자명성을 가진 설득의 작업과 거기에 설득되어서 내가 변화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며 이것으로 사람이 달라지는 것이고, 그래서 깨달아 알았을 때 지향하는 것이 죄짓지 않는 거룩의 상태이다.

### 3.5. 성화에 있어서의 믿음: 믿음에 의한 성화

마지막으로, 믿음으로 변화된 삶의 형태 즉 성화를 말할 때에 이것 역시 믿음으로 변화되어진 영혼으로 인해 발생되어지는 행동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동이 선하다고 하여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닌 믿음으로 변화된 영혼으로 인해 나오는 행동이 진정 선하다고 말하는 것이다.

또한 믿음과 행동의 관계에 있어 행동의 부분을 묘사할 때 그것은 믿음의 열매로써 묘사되고 있기에 믿음이 올바르면 행동을 당연히 나오는 것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여기서 강조되는 것 역시 행동이 아닌 믿음을 말하고 있다는 점이다.

161)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222.

162) ibid,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244.

163)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7.

결국 선행은 거룩하게 된 영혼의 결과인 것이다. 선행(Good Works)이 거룩하게 된 것이 아니다. 그 앞에 영혼이 성화가 되므로 그것이 몸의 언행을 통제해서 나오는 선행이므로 이 선행은 열매, 결과 일 뿐이다.

루터는 성화의 삶에 있어 그리스도인은 그 자신이 이미 믿음의 충만함과 부요함으로 배부르게 채워져 있기 때문에, 기쁨과 사랑을 가지고 가장 자유로운 종의 일을 기꺼이 행하여, 자발적으로 그리고 대가를 받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섬기게 된다고 말한다.<sup>164)</sup> 따라서 성화에서의 선행은 믿음의 열매로서 나오는 행동인 것이다.

칼빈에게서도 나타나는바 그리스도인은 일생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고 충심으로 느낄 만큼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삶으로 하나님을 인정한 영혼은 동시에 모든 허탄한 생각을 피하기에 이것이 곧 자기 부정의 삶, 성화의 삶이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듯 곧 이웃을 돕는 것에 있어서도 자기 부정의 삶은 자기의 일보다 남의 일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sup>165)</sup>

웨슬리는 인간이 선행(Good Works)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에서 성화에서의 선행을 크게 2가지의 항목으로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이 그것이다.<sup>166)</sup>

웨슬리는 성화의 경우 선행으로서 성화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은 성화가 영혼에서 일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성화되었다면 마땅히 선행이 나와하는 것이며, 선행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 앞에 영혼의 내적원리가 망가졌다는 얘기인 것이다. 그러므로 영혼이 의와 거룩으로 되어야만 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화가 잘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려면 선행이 잘되어가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선행이 없다면 그 앞에 영혼의 성화 상태가 뭔가 부패된 것이고, 그 이유는 그 앞에 믿음으로 된 것인데, 믿음이 뭔가 부패됐다는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 망가짐으로 영혼이 의와 거룩의 상태가 아니고, 그래서 그 영혼이 통제하는 몸의 상태가 선행이 안나오고 악행이 나온다는 것이다.<sup>167)</sup> 영혼의 기능이 이렇게 믿음에

---

164)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32.

165)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208.

16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1)-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230.

167) *ibi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448.

의하여 실제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칭의를 받으며 동시에 중생하는 것이요, 중생이 성화의 시작인 바,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가 성화의 근거인 이유다.

#### 4. 종교개혁적 믿음에 대한 오해

종교개혁적 믿음이라 함은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하는 구원론에 있어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으로 인간에 대한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 즉 이신칭의로 불리워지는 것이다. 또한 이 믿음은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자명하게 알려주시는 것으로 발생되어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시는 이 믿음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의 기대를 거는 현상이 바로 종교개혁적 믿음에 대한 오해인 것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종교개혁적 믿음의 주장에 있어 이것이 행동을 약화시켰다는<sup>168)</sup> 일부의 주장과는 달리 이 믿음은 오히려 행위를 더욱 완성시키고 있다는 점을 잊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앞서 비교한 바와 같이 이들에 대한 오해를 다음 네 가지로 논거 하여 믿음의 올바른 위치를 논거 하고자 한다.

##### 4.1. 인간 이해에 있어서의 오류

인간 이해에 있어서의 오류는 다음과 같다. 이것을 오해하는 입장의 부류에서는 인간을 구분함에 있어 영과 육의 구분은 갖고 있으나 구원의 시작이 오직 영혼에 의한 믿음의 현상이라는 것을 간과하는 현상을 보인다. 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영혼 구원 이외에는 구원이 불가능함에도 영혼의 회복보다는 뭔가 육체적으로 할 수 있는 행위 구원에 기대를 거는 현상이다. 이것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신인협동설의 주장, 즉 사람 자체에도 뭔가 기대를 거는 현상인 것이다.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믿음뿐만 아닌 사람의 행위도 함께 동반되어야 이룰 수 있는 생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외면적, 내면적인 방법도 함께 시도하려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 신인협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에 있어 이들은 인간의 이해에 있어 인간의 원죄에 대한 부분에서 전적무능력이 아닌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sup>169)</sup> 즉, 인간에게서도 뭔가의 행동을 동원해야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 있다고 보는 소위 ‘신인협동설(神人協同說)’의 사상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인간에게서의 뭔가 구원에 대한 가능성을 찾는다는 것은 원죄로 말미암는 인간의 전적 무능력을 배제하는 것이며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168) 『기독교타임즈』, 「목회와 신학」, (2003), 28 : 8.

169)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53-55.

더욱이 인간에게서 구원의 가능성을 찾고 있는 것으로 뭔가 사람의 행동에 구원의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개신교 내에서도 파생되어지는 문제로서 카톨릭의 구원론 즉, 구원은 믿음과 선행으로 되어진다는 교리로 점점 변모해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세 카톨릭 신학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윤리 학설을 받아들여 죄를 개개의 행동으로 보았다. 잘못된 부분만 제거하면 나머지는 성하다는 말이 된다. 기능은 약화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선악을 판별할 기능도 가지고 있고 불완전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어느 정도의 선행도 할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루터는 원죄를 단순히 부분적인 약점이나 죄로 보지 않았고, 그것은 전 인간을 완전히 영도 육도 지성도 의지도 감성도 전부 다 부패하게 했고 타락했다고 보는 것이다.<sup>170)</sup>

따라서 하나님에 의한 믿음이 아닌, 인간의 이성에 기초한 행위와 어떤 구원도, 구원에는 무능할 뿐만 아니라 인간을 잘못 현혹시키는 것이다.<sup>171)</sup>

종교개혁가들이 한결같이 주장하는 것은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모든 인간은 전적 무능력의 상태임을 말하고 있고 이는 성경에서도 나타난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독생자 안에서 구속주로 나타나셔서 죄로 인해 더러워지고 부패된 것을 회복시키실 때까지는 죽음의 파멸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다.<sup>172)</sup>

#### 4.2. 성경의 그릇된 이해

성경에 대한 그릇된 인식은 성경을 일종의 텍스트로 보며 또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의 결과로서 구원론에 대한 위험한 사상을 가져오게 하며 더욱이 믿음에 대한 오해의 여지를 불러일으키는 위험성을 낳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미 일부 학자들에 의해 나타나고 있는 바, 2001년 4월 경주에서 있었던 ‘위대한 감리교를 위한 감리교 대표자 회의’에서 K교수가 발표한 강연에서 이신칭의에 대한 오해 및 불신을 노출하였다. 이 강연에서 그가 주장한 핵심내용은 이렇다.

“바울이 말하는 ‘행위 없이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가 기독교

170) 이영현, “루터의 원죄사상”, 126.

171) 정병식, “시편 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 신학의 변화와 발전”, 11

172) 김정훈, “칼빈의 인간관”, 157.

교인들의 도덕성 타락의 원인이다. 신약성경 안에서 이미 바울의 ‘오직 믿음만으로’의 잘못된 신앙유일주의를 야고보와 마태가 ‘행위 있는 믿음’으로 올바르게 수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와 칼빈은 신약성경의 균형잡힌 가르침을 인식하지 못하고 바울의 신앙유일주의만을 강조하여 믿음을 확대왜곡하고 행위는 축소 왜곡함으로써 기독교인들의 도덕적 타락을 합리화했다. 그러나 웨슬리는 바울의 믿음강조와 야고보의 행위강조를 조화시킨 성공적인 신학자다. 오늘날 감리교는 이러한 웨슬리를 본받아야 한다.”<sup>173)</sup>

즉 이러한 주장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는 것이 아닌 일종의 텍스트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적인 결과물로 보는 것으로 바울과 야고보, 마태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또한 바울의 주장을 야고보가 보완한 것이라는 식의, 성경을 인간적인 서적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또한 여기에 웨슬리를 하나의 위대한 사상가로 접목시켜 성경을 새롭게 보완한 위대한 인물로 묘사되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의 묘사에 더욱이 놀라운 사실은 감리교의 방향성을 하나님에 대한 믿음 보다는 웨슬리를 하나의 본받아야 할 인물로 세워놓고 있다는 점이다. 웨슬리는 분명 감리교의 창시자가 맞지만, 그의 믿음에 대한 탐구를 보는 것이지 그를 본받자는 것이 아님을 이들을 또한 오해하고 있는 것이다.

종교개혁가들이 말한 성경의 개념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이며 또한 일하는 말씀의 개념이다. 루터에게서 성경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증거이므로, 어디든지 성경이 읽혀지고 들려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으로 묘사한다.<sup>174)</sup>

칼빈 역시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언에 의해 우리에게 인식되기 전에 이미 자체적으로 진리의 분명한 증거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성경은 오직 성령의 은밀한 증거에 의해서 세워지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이다.<sup>175)</sup>

웨슬리에게서도 나타나는바 성경에 일치되게 믿는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sup>176)</sup>

따라서 성경을 하나의 텍스트로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인

173) 『기독교타임즈』, 「목회와 신학」, (2003), 3.15 : 8.

174) 문영주, “루터와 칼빈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관점”, 21.

175) 이은선, “칼빈의 성령론”, 324.

176)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主, 우리의 의(義)(The Lord Our Righteousness)」, 166.



간이 생산해내는 것의 하나로 보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명성과 확신에 의해 믿음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며 이 믿음 역시 하나님에 의해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 4.3. 믿음 개념의 오해

종교개혁적 믿음이라 함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혼(soul)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영혼 안에서의 즉각적인 인식이라는 사실이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바로 믿음을 인간의 이성에 대한 인식기능으로 알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로 말미암아 일부 신학자들에게서는 ‘행함있는 믿음’을 필수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sup>177)</sup> 즉, 이성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지적동의’ 현상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믿음과 지적동의의 차이점을 묘사하면 다음과 같다는 사실이다.

첫째, 믿음(believe)은 하나님을 사귀는 것이다. 영혼의 현상, 비물질적이므로 학술적인 관찰을 할 수 없다. 웨슬리는 인간이 원죄 하에 있었는데 이것은 마귀의 일로 보았다.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은 이 마귀의 일을 파멸하기 위함이고, 원죄가 하나님의 본질 형상(지, 의, 정, 자유)이 망가져 하나님을 못 알아본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것을 다 바꿔 놓는 것이다.<sup>178)</sup> 하나님 몰라보는 불신앙을 신앙(=믿음)으로 바꾸고 하나님 못 따라가는 교만(=자기의지)을 겸손(=순종)으로 바꾸고, 피조물 사랑을 하나님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바꾸는 사랑을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며 이렇게 바뀐 상태가 중생상태다.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곳은 영혼이다. 여기서 지(Understanding)는 이성이 아닌 것이다. 그래서 웨슬리 표현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를 고쳐서 하나님을 알아보게 할 때, 표현하길 이해력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즉각적으로 알아보게 한다. 직관으로 보게 한다. 그래서 웨슬리는 일부러 ‘직관(intuition)’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sup>179)</sup> 이러한 내용을 칼빈은 영혼이 성령의 조명을 받아 날카로운 시력을 얻어 하늘의 비밀을 보게 됐다고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sup>180)</sup>

웨슬리 주장은 예수 믿고 중생하기 전에는 죽어도 하나님을 모른 다는 것이다. 이것이 결국 원죄다. 신 존재, 이것은 사람이 지식으로 알 수 있다. 또한 그것은

177) 『기독교타임즈』, 「목회와 신학」, (2003), 28 : 8.

178)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 139.

179) ibid., 152.

180)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62.

하나님을 사귀는 것과고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생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사귀는 뜻이다. 이러한 사귀의 묘사에 있어 웨슬리는 그의 설교 “원죄”(Original Sin)에서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우리가 직접 알지 못하는 중국의 한 황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듯이, 우리는 온 세상의 한 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그를 알지 못했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기능들 가운데 어떤 기능으로도 그를 알 수가 없었다. 이 기능들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가 없다.”<sup>181)</sup>

그렇다면 믿음이 있을 때, 지적동의를 나타낸다는 것은 순종이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들어서 깨달아 알고, 이제 내 마음이 동하여 따라서, 이 때는 지적동의를 부르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순종’이라고 불려야 된다. 지적동의를 지식, 이성으로 알아서 아는 것인데 이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웨슬리는 이것을 그의 설교 “믿음에 의한 구원”(Salvation by Faith)에서 **마귀의 믿음 (believe of devil)**<sup>182)</sup>이라고 묘사한다.

즉, 마귀는 예수님 알아보나,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저주의 대상으로 끝나니 웨슬리가 볼 때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도 지옥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이 하나님을 정확히 안다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지적동의인 것이다.

#### 4.4. 성화에 대한 그릇된 견해

종교개혁가들이 말하는 구원은 분명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며 이것 역시 성경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칭의와 성화 역시 믿음으로 되어짐을 말하고 있음에도 일부 학자들의 그릇된 성화인식은 믿음과 인간의 행동을 함께 동반해야 된다는 카톨릭 식의 구원론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오해는 루터, 칼빈, 웨슬리의 시대에도 이미 등장했던 것들의 내용이다. 성화에 있어 행위와 믿음의 관계는 행위는 필수이지만 이것으로 뭔가 구원에 대한 기대를 걸지 말라는 것이다.

루터에게 있어 행위들과 의식들은 인간이 이 속에서 살고 있기에 인생에서의 삶

181)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원죄(Original Sin)」, 117-118.

182) *ibid.* 믿음에 의한 구원(Salvation by Faith), 347.

을 유지하고 육신을 제어하기 위한 것으로 필수불가결 하다는 것이다.<sup>183)</sup>

칼빈 역시 의식은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버릴 수 없는 종교적인 행사임을 말하려는 것이다.<sup>184)</sup>

웨슬리 또한 칭의 받은 사람에게서는 선한 행위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이 의무이기 때문에 행위는 필수이지만 믿음만이 유일한 조건임을 나타내고 있다.<sup>185)</sup>

따라서 성화에 있어서의 삶 역시 행위는 믿음에 의하여 나타나는 열매의 모습이다. 이 열매로서의 행위를 중단하라는 것이 아닌 더욱 열심을 내는 것이다. 이것이 육신을 제어하는 것이며 믿음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성화의 삶에서 그 조건은 오직 믿음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원인은 믿음이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선행인 것이다.

결국 성화의 삶은 믿음이 전제되어진 조건에서 나타나는 행위가 있는 것이다. 믿음으로 칭의되는 것이며 믿음으로 회개가 이뤄지는 것이며 또한 믿음으로 성화의 삶이 전개됨을 나타내는 것이다.

기독교인의 이러한 성화를 추구하는 모습 가운데 언제부터인가 개신교를 향하여 기독교의 변화 즉, 교회성장이라는 명목 하에 우후죽순(雨後竹筍)격으로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 바로 ‘교회성장단체들’이다. 이들 모두가 행위구원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단체들에서는 아예 노골적으로 행위구원을 말하고 있으며, 마치 로마 카톨릭의 전형적인 구원 방법을 묘사하여 개신교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이다.

신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이들 단체들이 내놓은 구원론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험성을 갖고 있는지, 또 얼마나 큰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는 것이다. 이들 단체가 내놓은 특징들의 대부분은 다음과 같다. 즉, 이들은 교회가 단기간에 걸쳐 자신들이 설계해 놓은 프로그램에 충실하기만 하면 교회가 성장 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 바, 교회들을 향한 헛된 망상에 빠지게 만들고 있다. 그 중의 한 단체가 바로 셀 교회의 프로그램을 만든 ‘NCD’<sup>186)</sup>라는 단체

183)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43.

184) 존 칼빈, 「존 칼빈 聖經註釋」 제8권 (서울: 성서원), 300.

185)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226.

186) NCD : Natural Church Development의 약자로 ‘자연적 교회성장’을 말한다. 즉, 이들이 주장하는 8가지 항목(1.사역자를 키우는 지도력, 2.은사중심적 사역, 3.열정적인 영성, 4.교회의 기능적 구조, 5. 영감있는 예배, 6.전인적 소그룹, 7.필요중심적 전도, 8.사랑의 관계)을 다 지키는 교회가 성장하는 교회이며 더욱이 이것을 항목으로 만들어 놓아 점수를 부여하여 65점 이상 기록된 교회는 어디에 내어놓아도 성장을 한다고 한다.

이다.

이들은 성경적인 교회론을 말하면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행했던 형태를 제시한다. 그리고 그 형태를 그대로 취해야 하는 것이 교회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말한다. 즉, 이들은 초대교회 사람들이 무엇 무엇을 했다는 식의 외형적인 모습 말하면서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성장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소그룹 문화에서 그들의 신앙을 지탱해 왔다고 말하는 신약성경으로부터 독특한 느낌을 받습니다. 신약성경의 여러 곳에서 이러한 교회의 형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 관람자보다 예배 참여자 / 그들은 집에서 만났다 / 예수의 가르침을 자주 소그룹 상황을 반영한다 / 애찬은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베풀어졌다)<sup>187)</sup>

셀 교회에서 말하는 교회 성장의 테마가 이것이다. 즉, 이들은 외향적인 형태를 묘사하고 이것을 따라 할 것을 가르치며 또 이렇게 해야 교회가 성장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외형적인 형태를 추구하려는 것이 안타깝게도 종교개혁가들이 그렇게 지적한 카톨릭의 구원론과 같다는 사실이다.

우선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를 보면 다음과 같다. 웨슬리는 그의 설교 ‘메토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평이한 해설’(A plain Account of the People called Methodists In the a Letter to the Rev. Mr. Perronet, Vicar of Shoreham in Kent)에서 메토디스트의 내부 조직 및 운영의 진보에 관해 그 상황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글은 소위 메토디스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내부 조직 및 운영의 진보에 대한 평이한 해설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답변하는 편지 글로 쓰여진 것이다.

“메토디스트들은 나중에 발전되어 나온 이런 결과들에 대하여 처음에는 전혀 예측조차도 못하였었고, 따라서 어떤 구상이나 계획을 미리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그 때마다 계기가 그렇게 됨으로써 자연스럽게 발생되곤 했던 것이다. 그들은 곧 일어날 듯한 악 또는 눈앞에 닥친 악을 보거나 또는 느꼈던 것이고, 또는 어떤 선한 목적을 반드시 추구할 필요를 보거나 느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그 선을 확실하게 추구할 수 있는, 또는 그 악을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는 바로 그 방법을 부지중에 발견하게 된 일이 여러 번 있었던 것이다. 또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하여, 단지 상식(common sense)과 성경(Scripture)을 따르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이 무엇인지 의논하여 찾았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보니까, 이런 방법들과 아주 흡사한 방법들을 과거의 기독교(Christian antiquity)에서도 마찬가지로 사용했었다고 하는 사실을 거의 매번 발견했던 것이다.”<sup>188)</sup>

187) 랄프 네이버, 「신병훈련소」, 유충열, 김인호, 정진우역 (경가: 도서출판NCD, 2000), 13.

웨슬리가 말하고자 하는 교회의 운영조직은 초기 기독교를 흉내 낸 것이 아니다. 내부조직과 운영에 있어 문제가 봉착될 때마다 상식과 성경을 따르면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은 이들이 최소한 인간이 알 수 있는 기능과 그 기준으로서 성경으로 해결 방법을 찾았다는 점이다. 그런데 결과가 초기 기독교와 같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셀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나타난 외양을 따라하자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 그 중에서 감리교 내에서도 이러한 외형을 따라하자는 셀 교회의 교육방식을 내세우며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있는 현실이다. 감리교 창시자 웨슬리는 분명히 외양이 아닌 출발을 얘기하고 있으며 형태에 있어서는 상식과 성경을 따르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 졌음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루터 역시 외적인 형태의 어떤 것으로도 내적인 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말한다. 외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인간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으로 형태의 행위와 함께 인간의 내적 행위인 명상, 사변도 함께 포함되는 것이다. 인간이 스스로 하는 기도와 금식 등의 모든 경건의 행위조차도 인간에게서 생산되어지는 것이기에 이것으로는 내적 인간인 영혼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사실이다.<sup>189)</sup>

영혼이 의롭다 함을 받는 유일한 것을 인간이 원죄의 상태이기에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믿음 외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믿음은 인간이 생산해내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행동이기에 하나님의 행동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칼빈의 인간 이해에서도 이와 같은 인간의 타락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영혼과 육체의 관계에서 육체를 제어하고 다스리는 기관이 영혼이기에 먼저 영혼의 상태에 따라 선행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인간의 영혼은 아담 이후 전적으로 부패되어 그것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무섭도록 추한 것뿐이라는 사실이다.<sup>190)</sup>

일부 감리교 목회자 내에서는 이 프로그램이 웨슬리의 속회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이라 극찬하는 현상까지 나타난다. 그러나 분명 웨슬리는 앞서 나타난 바 속회의 구성을 초기 기독교에서 모방한 것이 아닌 그렇게 되어졌다라고 말한다. 웨슬리의 출발은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오늘날 감리교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감리교의 목회자라면 문제의 해결을 최소한 성경이나 웨슬리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어야 한

---

188) Wesley, John. *The works of John Wesley-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254.

189)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5.

190) 존 칼빈, 「기독교 강요(1)」, 322.

다. 웨슬리의 출발은 성경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동안 그렇게 되어진 것이다. 오늘날 감리교의 문제점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 싶다. 감리교의 목회자라면 문제의 해결을 최소한 성경이나 웨슬리의 경우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여기서 감리교인 즉, 'Methodist'라는 말을 다시금 새겨볼 필요성이 있다.

“웨슬리가 말하는 'Methodist'라는 단어는 사실 '감리교인'이라는 뜻이 아니다. '감리교인'이라는 단어는 단지 '감독이 감독하고 관리하는 감독제도 교회의 교인'이라는 뜻이다. 그러나 'Methodist'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무조건 정해진 처방을 철저히 지키도록 해서 병이 낫기를 기대하는 멍청하고 실력 없는 의사'를 의미했다. 그래서 웨슬리를 위시한 일단의 사람들이 오로지 성경의 지시를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이들을 조롱하여 'Methodist'라는 별명으로 불렀던 것이다. 그러나 웨슬리는 이 별명을 은근히 자랑스럽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 별명은 자신들이 과연 철저히 성경의 지시에 따라 살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였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웨슬리에게 있어서 'Methodist'라는 말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대로만 기록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Bible-Christian'과 같은 말이다.”<sup>191)</sup>

따라서, 일부 단체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성장 프로그램'을 보며 웨슬리의 속회를 현대에 맞게 재구성한 것으로 극찬한다는 것은 결국 자신들이 얼마나 성경적인 접근을 하지 않고 있었다는 것과 얼마나 감리교인으로서 웨슬리와는 상관없는 감리교 속회를 이끌어 왔다는 것을 함께 드러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191)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대전: 복음출판사, 2002), 4.

## 5. 맺는 말

개신교, 오늘날의 일반 기독교회를 지칭함에 있어 그 뿌리는 분명 종교개혁가들의 복음주의로 시작됨을 말할 것이다. 그들이 발견했던 신학의 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기초한 것이었으며 또한 구원의 핵심인 믿음의 본질에 있어서도 인간의 생산품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구원의 핵심인 믿음의 본질이 흔들린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개신교의 정체성이 그 의미를 잃고 있다는 것이며 더욱이 영혼구원이라는 말은 한낱 인간의 이론에 불과한 것으로 매듭짓게 될 것이다.

개신교 신학 그 중에서도 감리교의 신학에 있어 이러한 문제점은 이신칭의를 말함에 그 본질을 잃어 가고 것이며 또한 새로운 종교형태로서 변질되어가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성경에 기인하지 못하며 인간에게서의 뭔가 가능성을 찾는 신학적, 신앙적 오류는 그것을 주장하는 자신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약속인 영생의 길이 아닌 영벌로 치닫게 함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해야 할 것이다.

개신교가 등장하게 된 것은 분명 카톨릭의 잘못된 구원론 즉, 믿음과 선행으로 말미암는 신인협동설(神人協同說)에 대한 성경적 반론을 제시하게 된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다. 성경적 반론, 즉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사람의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다는 것이며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고 이 말씀 역시 하나님이 가르쳐주셔야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개신교의 신학이며 이것이 또한 감리교의 신학인 것이다.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구원의 기대를 걸지 않는 것이다. 구원에 있어 하나님 외의 다른 것에 기대를 건다는 것의 발상이 이미 개신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개신교의 구원론은 루터, 칼빈, 웨슬리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바 하나님으로 인한 믿음으로 말씀이 영혼에 각인됨으로 구원의 시작이 되고 있음을 이들은 자신들의 글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 <참고문헌>

### 국내서적

- 김홍기. 「존 웨슬리의 구원론」 서울: 성서연구사, 1996.  
이선희. 「웨슬리 신학의 탐구」 대전: 복음출판사, 2002.  
이형기. 「종교개혁 신학사상」 서울: 기독교문사, 1997.

### 번역서적

- 랄프 네이버. 「신병훈련소」. 유충열, 김인호, 정진우역. 경기: 도서출판NCD, 2000.  
마틴 루터. 「그리스도인의 자유에 관한 논고」. 이선희 역. 미간행 번역원고.  
마르틴 루터. 「루터의 로마서 주석」. 박문채역. 경기: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2002.  
존 웨슬리. 「존 웨슬리 설교선집(I)」. 이선희역. 대전: 복음출판사, 2002.  
--인간이란 무엇인가(*What is Man?*)」  
--원죄(*Original Sin*)」  
--그리스도의 오신 목적(*The End of Christ's Coming*)」  
--主, 우리의 의(義)(*The Lord Our Righteousness*)」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길(*The Way to the Kingdom*)」  
--성경적 구원의 길(*The Scripture Way of Salvation*)」  
--우리 자신의 구원을 이룸에 관하여(*On Working Out Our Own Salvation*)」  
--거의 그리스도인(*The Almost Christian*)」  
--믿음의 의(義)(*The Righteousness of Faith*)」  
--믿음에 의한 구원(*Salvation by Faith*)」  
--믿음에 의한 칭의'(*Justification by Faith*)」  
--신생(*The New Birth*)」  
--신생의 표징들(*The Marks of the New Birth*)」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의 위대한 특권(*The Great Privilege of Those that are Born of God*)」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에 관하여(*On Sin in Believers*)」  
--믿는 자들의 회개(*The Repentance of Believers*)」  
--그리스도인의 완전(*Christian Perfection*)」  
존 칼빈. 「기독교 강요(I)」. 김충호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존 칼빈. 「기독교 강요(III)」. 김충호역. 서울: 한국출판사, 2000.  
존 칼빈. 「존 칼빈 聖經註釋」 제8권. 서울: 성서원.

### 외국서적

- Wesley, John. *The works of John Wesley-The Methodist Societies History, Nature, and Design*. Nashville: Abingdon Press, 1989.



## 논문

- 곽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교회와 신학」 제4호 (1971).
- 김문기. “복음적 설교의 전형”. 「루터 研究」 제15집 (2001).
- 김정훈. “칼빈의 인간관” (정규오목사 은퇴기념 논총, 광신대학교, 1999).
- 김주한. “마르틴 루터의 인간 이해”.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9집, 2000).
- “마틴 루터의 십자가 신학 연구”. (한국교회사학회지 제10집, 2001).
- 김철환. “말틴 루터의 설교신학에 나타난 ‘율법/복음 설교’에 대한 연구”. 「루터연구」 제12집 (1997).
- 문영주. “루터와 칼빈에 있어서 성경 해석의 관점”. 「광신논단」 제2집. (1990).
- 박일영. “루터교의 교회 이해”. 「신학과 신앙」 제9집. (1998).
- 안명준. “칼빈의 성경해석학에서 사용된 성령의 조명”. 「신앙과 학문」 (1998).
- 엄현섭. “루터의 성서 해석 방법과 그 영향”. 「신학과 신앙」 제4집 (1990).
- 유정우. “칼빈의 구원론에 있어서 성화의 위치”. 「복음과 신학」 제1집 (1996).
- 이상준. “칼빈의 율법개념과 개혁교회 전통”. 「한국교회사학회지」 제6집 (1994).
- 이양호. “루터의 인간론”. 「현대와 신학」 제25집 (2000).
- 이영현. “루터의 원죄사상”. 「교회와 신학」 제11호 (1979).
- 이오갑. “칼빈의 종교개혁과 신학원리”. 「말씀과 교회」 제26호 (2000).
- 이은선. “칼빈의 성령론”. 「한국개혁신학논문집」 제2집 (1997).
- 정규남. “칼빈의 성경관”. (정규오목사 은퇴기념 논총, 광신대학교, 1999).
- 정병식. “시편 4편 주해에 나타난 초기 루터 신학의 변화와 발전”. 「역사신학논총」 제2집 (2000)
- 조봉근. “칼빈의 성령론”. (정규오목사 은퇴기념 논총, 광신대학교, 1999).
- 지형은. “루터와 스페너”. 「복음과 학문」 제4집 (1998).

## 기타관련자료

「기독교타임즈」, 「목회와 신학」, (2003), 2.8 : 8, 2.15 : 8, 3.15 : 8.